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3호 HYUNBULNEWS.COM 2026년 1월 21일(음력 12월 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6월 3일 지방선거 불자 리더가 뛴다

최대 격전지 분류 서울시장에
김영배 · 박주민 등 출마 선언
김병주, 경기도지사 도전키로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예정
이광재, 강원도지사 재도전

신중일 · 김내영 기자

5개월 가량 남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3 지방선거)에 불자 리더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3 지방선거 최고 격전지는 단연 서울이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박주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불자 정치인이다.

정각회 수석부회장인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 첫 행보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이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진우 스님을 예방한 김 의원은 "결국 모든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하는데, 과연 스스로가 욕심을 내려놓았는지에 대해 수없이 고민하게 됐다"며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시민의 실익을 위한 정책이 결국 시민의 공감과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은평구의 대표적 사찰인 진관사를 다니며 신행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역시 1월 14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조언을 구했다.

박 의원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서울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되고 있다"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마음을 듣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치인은 당장 일부만 보기보다 역사와 미래 세대까지 폭넓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철학을 세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월 15일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 직후 곧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혜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시장 후보로 나서는 분들은 진영 논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시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400만명이 거주하는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이끄는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불자 정치인 김병주·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하기로 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시절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맡을 정도로 두터운 신심을 자랑하며 지난 대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불교본부장을 맡아 불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했다. 1월 7일 태고종 신년하례회를 찾은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큰 원력을 하나 세웠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삼았듯이 경기도를 대도약시키는 역할을 맡겠다는 원력"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의원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을 성철 스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실한 불자로, 대학 1학년 때 사찰에서 공부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주호영 온라인 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으며 1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강원도지사에 재도전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불자 정치인이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 전 사무총장은 힘든 시절마다 사찰에서 마음을 다스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도(佛都) 부산에서는 '혜각'이라는 법명을 가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시장 출마를 고심 중이다. 불교세가 강한 제주도에서는 불자인 오영훈 현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AI시대, '마음 문명 불교' 토대 만들 것"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2026년 신년기자회견 개최

37대 집행부 차질 없이 마무리
선명상 대중화 위한 기구 설치
'젊은 불교' 이미지 지속 확산
"선거, 종헌종법 따라 엄중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 2570(2026)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종책 과제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조계종이 올해 선명상과 불교 수행의 지혜를 결합해 현대인의 정서와 과학적 사고에 부합하는 불교, 즉 디지털·AI 융합형 '마음 문명 불교'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병오년은 제37대 집행부의 마지막 임기를 맞는 해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단 발전과 국민 마음 평안을 이끄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 2570(2026)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종책 과제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진우 스님은 "올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며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한국불교가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는 반석을 견고히 다지겠다"고 천명했다.

조계종은 올해도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민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치유하고 '국민 마음 평안'과 '마음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선명상 대중화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선명상을 정신문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연령·상황·수행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명상 지도서를 보급하고, 선명상 체험관을 운영해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역 거점, 현장 밀착형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특정 종교의례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평안 훈련"이라며 "선명상을 통해 국민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은 그동안 우리 종단이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 온 중요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화쟁 사상을 토대로 사회 양극화와 고립·대립 심화 등 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공동체적 가치 회복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메시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간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불교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중생을 직접 구제하는 실천의 종교"라며 "노인과 장애인, 청년과 이주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상담, 치유, 복지, 돌봄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불교가 국민 곁에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박람회와 국제선명상대회, 간화선대회, 연등회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개최해 젊고 역동적인 불교의 흐름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불교박람회는 4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불교박람회를 시작으로 대구·부산·광주 등 주요 도시로 확대 개최되며, 예년보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전 세계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제적 불교박람회로 발전시켜, 세계 불교문화권과 상호 소통하고 통합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젊은 불교' '힙한 불교' 이미지 확산을 위해 '나는 절로'와 '청년밥심' 등 세대와 호흡하는 혁신적인 포교 모델을 체계화하고, 지역 포교결집대회를 통해 사부대중의 역량을 결집을 적극 추진한다.

전통 문화유산 가치 확립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힘쓴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 유관기관(국가유산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기술적 검토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 보존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양평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는 올해 보존 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비파괴 분석기기인 적외선 카메라와 내시경 카메라, X-ray 장비 등을 활용해 해체가 불가능한 유물의 내부 상태와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과학적인 보존·복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3면에 계속

지구촌 생명살림 공동 캠페인 共生

세계는 한 꽃송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내일의 꿈을 적어 내려갈 공책 한 권이 이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성 대신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로터스월드 가비를 나르는 수리꾼

소중한 후원금은
피난민과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긴급 구호
피난민 생필품, 영양식, 의료품 지원

교육 지원
파손된 학교 보수 및 교복, 가방, 학용품

후원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현지방문 2026년 3월
아이들이 다시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세요!

후원 동참 문의
02)2004-8214

진우 스님, 이 대통령에 "마음 안보" 강조

1월 12일,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국민통합 위해 종교계 지혜 경청
진우 스님 "명상 등 평안에 앞장"
이 대통령 "화합에 역할 해달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표로 이같이 발언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통합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계의 지혜와 역량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초저출산, 고령화, 낮은 행복지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 안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이 깊이 지쳐있다는 신호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우리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의 평안과 또 정신적 안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대통령님과 저희(종교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저희 종교 지도자들도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되, 명상과 마음 치유와 같은 공통의 영역에서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운영에 대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았다"며 "초기에는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높게 평가했다.

진우 스님의 '마음 안보'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던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었다"며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인데,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2일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에서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를 열고 종교계의 지혜를 경청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찬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찬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서울대교구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정 종교 광화문집회 방치, 헌정 질서 훼손"

태고종 1월 11일 입장문 발표
"특정 종교, 광화문 점유 시위"
서울시·종로구 등이 특혜 제공"

1년 넘게 이어지는 특정 종교의 광화문 집회·시위에 대해, 태고종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찰 등이 종교편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 종교단체가 광화문대로를 수년간 상시적으로 점유하며 사실상 사유화해 온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고 보호해 온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의 노골적인 종교 편향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공공 공간인 광화문대로는 특정 종교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태고종은 "현재 광화문 일대는 특정 종교단체가 매 주말마다 대규모 행사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며 상시 점거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공공장소의 이용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집회'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특정 종교의 신봉을 조장하는 특혜를 제공하며 보호막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공권력이 특정 종교의 장기·반복적 공공장소 점유를 용인하고 지원해 왔다면 이는 헌법상 중립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힐난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태고종은 "일반 시민과 단체는 광화문대로에서 단 하루의 행사조차 개최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사전협의와 막대한 비용 부담,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특정 종교단체는 동일한 공간에서 수년간 매주말 행사를 이어오면서도 실질적인 제약없이 보호를 받았다.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공권력의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태고종은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에 특정 종교단체에 제공되어 온 공공장소 사용 특혜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 공개 및 해명과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종교·이념·단체 불문 동일 적용 공공장소 사용 원칙 명문화와 광화문대로가 특정 종교에 의해 상시 점유되는 구조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고종은 "공공 공간은 신념을 강요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며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이 헌법이 요구하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공권력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중일 기자

2026년 첫 장성 인사…'불자 장군' 30명

군종교구, 불자 소·준 진급 파악
법원 스님 "자비로 국가 수호"

정부가 1월 9일 단행한 장성 인사에서 불자 준장 13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각 군 주요 지휘관 및 핵심 직위에 보임됐고, 불자 대령 17명은 준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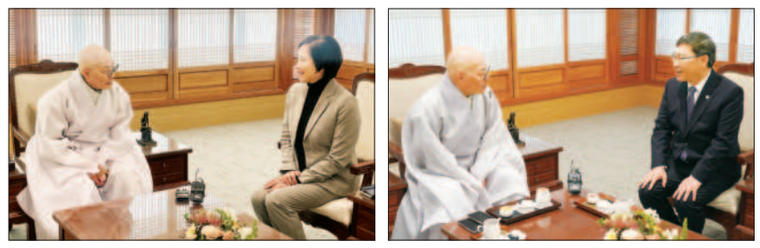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1월 13일 불자 장성 인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준장 41명을 소장으로(육군 27명, 해군 7명, 공군 6명, 해병 1명), 대령 77명을 준장으로(육군 53명, 해군 10명, 공군 11명, 해병 3명) 진급·보직했다. 이 가운데 군종특별교구는 불자 장성은 소장 13명(육군 7명·해군 2명·공군 3명·해병 1명), 준장 17명(육군 12명, 해군 2명, 공군 1명, 해병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 외 출신 및 공군 비조종 병과 인원이 높은 비중으로 선발되는 등 인사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 군종특별교구 측의 설명이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흔들림 없는 신심과 청정한 품행, 공동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소임을 다해 온 불자 장군들의 진급은 군과 불교계 모두의 큰 경사"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군 현장에서 이어져 온 군포교의 결실이자, 불교적 가치가 국방·안보의 핵심 영역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사례"라며 "새로 중책을 맡은 불자 장군들이 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조직을 이끌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잇따라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시도교육감 도전자들 "선명상 교육" 공감

유은혜·정근식, 진우 스님 예방
마음교육 중요성 생각 공유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차례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선명상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유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의 정서 회복과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계종 선명상위원 혜주 스님으로부터 선명상을 기반으로 한 교육교재 설명을 유심히 들은 유 전 장관은 "선명상 프로그램들은 성장 과정 단계에 맞는 치유프로그램으로 교육운영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어 보이는 교재"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 안보'를 강조했다. 스님은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어릴 때부터 자율성과 내면의 안정감을 키울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 15일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우 스님과 마음교육과 평정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 스님은 정 교육감에게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선명상은 마음을 조절하는 훈련으로, 공교육 현장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원장 스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학생들이 마음에 평정심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감동, 즐거움, 쓸모 있는 인생수업을 위한 불교 강의

나를 비춰보는 가장 치열한 자기관리의 거울
2년제 한글 불교전문강원 (일반 · 심화과정)

강 좌 명		강의주제 및 교재	담당교수
1학년 (26년)	원각경 1학기(3월~6월)	인생이란 무엇인가? – 원각경경 · 현담 –	신규탁 (연세대 명예교수)
	기신론 2학기(7월~10월)	종교적 믿음의 본바탕 – 대승기신론 의기 –	〃
	능엄경 3학기(11월~2월)	명상의 근본 줄기와 총정리 –수능엄경주해 –	화광스님 (월운 강백 제자)
2학년 (27년)	금강경 1학기(3월~6월)	손에 잡히는 금강경 – 금강경 찬요 –	신규탁
	화엄경 2학기(7월~10월)	진리의 종합선물세트 – 주화엄법계관문 – – 화엄경나들이 –	〃
	선문염송 3학기(11월~2월)	선체험과 문학의 향기 – 정선선문염송설화 –	〃

◇ 개강일시 : 3월 4일(수) 14:00(심화과정), 19:00(일반과정)
◇ 모집정원 : 심화과정 20명, 일반과정 20명
◇ 수 강 료 : 학기당 24만원

옛 스승들에게 배우는 마음경영 기술
선어록–지혜의 족보를 찾아보는 강의

	강 좌 명	교재 및 저자	담당교수
26년	마음 뿌리 찾기–위대한 스승들 1학기(3월~6월)	선문사자승습도: 규봉	신규탁
	한계를 뛰어넘는 몰입의 기술 2학기(7월~10월)	서장; 대혜	화광스님
	흔들리는 일상에서 마음 지키는 법 3학기(11월~2월)	서장; 대혜	화광스님
27년	허물을 벗고 나답게 사는 첫발 1학기(3월~6월)	선요;고봉	신규탁
	인생의 주인이되는 결정적 지혜 2학기(7월~10월)	선요; 고봉	신규탁
	다섯 거장에게 배우는 유연한 사고법 3학기(11월~2월)	선문오종강요;지안	신규탁

◇ 개강일시 : 3월 10일(화) 19:00
◇ 수 강 료 : 1학기 24만원(월 6만원)
◇ 강의영상자료 제공 : 개인별 이메일로 수업 후 제공

44년의 전통, 꿋꿋하게 지켜온 실천불교
3월 개강 – 특별 강좌

과목명	담당교수(강사)	개강일시	수강료
신법화론 (강의 영상자료 제공)	최봉수	3월 5일(목) 11:00 (기간: 3월~6월)	1개월 10만원
알고싶은 불교, 새로운 기본교리	신규탁	3월 7일(토)14:00 (기간: 3월~5월)	3개월 5만원
전통범패의식	인각 스님	3월 10일(화)14:00 (1학기:3월~7월)	5개월 50만원
불교미술	법인 스님	3월 4일 10:30 (1학기:3월~7월)	1학기 85만원
민화	문미영	3월 6일(금) 10:00 1학기: 3월~6월	1학기 60만원
불교사상과 예술의 세계	강여울	3월 5일(목)14:00 (기간:3월~5월)	1개월 6만원
한글불교의식	문종순	3월 14일(토)13:00 (1학기:3월~7월)	1학기 30만원
행운을 부르는 인상학	김계화	3월 5일(목)15:00 (기간: 3월~5월)	1개월 5만원

불교교육 전법도량 (사단법인)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대표전화: 02–732–1206 / (우)0315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선거는 종도 생각 중요…엄정 관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출마, 마음대로 되는 일 아냐” 가능성 시사…“평가는 종도 몫”
발우공양 미쉐린 쓰리스타 목표
열암곡 마애불 존치 방향도 검토

글=김내영 기자 · 사진=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올해 치러지는 주요 선거를 언급하며 엄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해 종단 내 주요 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종헌·종법에 기반한 엄정한 선거관리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 주요 선거를 앞둔 종단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해 왔고, 불교와 종단을 아끼는 종도들의 성원 덕분에 화합된 종단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며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종단 차원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모범적인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차기 총무원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다. 하고 싶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3년간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게 애써 왔지만, 그 평가 역시 종도들의 몫”이라며 “의지가 너무 지나치면 과욕이 돼 오히려 피해를 준다. 반면 의지 없으면 무능력하고 신뢰받을 수 없다. 그 선상에서 잘 조율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했다. 진우 스님은 “사회적 해악이 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종교가 신성불가침이라지만, 종교 역시 국가와 헌법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1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불교는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실천 활동을 확대에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겠다. 이것이 포교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에 선재 스님이 출연하며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진우 스님은 “한국적인 사찰음식을 세계화해 선명상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이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쓰리스타를 목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가자 증가를 위한 종단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환경적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 99명의 출가자를 배출했다”며 “올해 3월 사미계 전반기 수계자가 60명을 넘었고, 연말까지 100명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출가자가 대폭 늘고 있다. 출가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불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입불을 목표로 하되 문화유산 보존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우 스님은 “오랜 세월 누워 계신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국운이 융창하고 불교가 중흥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불사가 시작됐다”면서도 “경주시와 경상북도,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불상에 균열이 확인될 경우, 입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만간 정밀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불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현 상태를 유지해 참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불교 문화유산 재난 대응 강화
공익 수익사업으로 재정 안정화

아울러 유물의 장기적이고 안전한 보관을 위해 수장시설과 보존처리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북 지역 산불과 충청권 수해, 강릉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고운사를 비롯한 다수의 불교유산이 피해를 입은 만큼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과 목조 성보가 다수 존재하는 사찰의 특성을 고려해 규모와 지형에 맞는 재난 대응 설비와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사, 말사, 지형(산지·평지·도심지) 등을 구분해 국가유산 보유사찰의 유형을 나누고 각 사찰에 설치된 재난 안전 설비의 현황 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재난 안전 설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이 같은 불교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교육·선명상·콘텐츠·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공익적 수입사업을 확대해 종단의 재정적 토대 안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그 수익을 수행과 포교, 복지, 교육으로 다시 환원해 국민께 나눔으로 되돌려 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끝으로 올해 예정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 종단 주요 선거 일정을 언급하며 “종단 선거가 종헌과 종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새로운 출범과 변화가 화합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선출 문화의 모범을 보이고, 안정된 종단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내영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에 재안 스님 선임

1월 13일 제364회 이사회 결의
성 비위 WISE캠 교수 중징계 회부
덕문 스님 사임…5000만원 기부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에 내소사 주지 재안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는 1월 13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64회 이사회를 열고 오는 4월 24일 임기만료 예정인 도림 스님의 후임으로 재안 스님을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제236회 정기회에서 도림 스님의 후임으로 재안 스님과 성원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을 복수 추천했다.

재안 스님은 원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사미계, 199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2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장, 안양사·개암사·동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이며 내소사 주지, 중앙종회 사무처장 소임을 맡고 있다.

상정된 ‘교원 징계의결 요구의 건’에서 이사회는 학생 강제 추행 등 성(性) 비위로 문제가 된 WISE캠퍼스 불교학부 A교수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A교수의 징계 수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견을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로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성 비위 사건은 30일 이내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징계’의 경우 파면, 해임, 정직 중에서 양형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교원 인사 승인 △2025 회계연도 각급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의료원 긴급치료병상 부기등기 승인 △의료원 긴급치료병상 부기등기 승인 등에 대해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노력과 정진을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올해 병오년은 붉은 말, 적토마의 해이다. ‘적토마’는 정진과 지혜, 실천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동국대 건학이념과도 맞닿아 건학 120주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동국의 해라고 생각한다. 학교와 산하기관 모두 적토마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실천을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사회에 앞서 이사직에서 사직한 덕문 스님(화엄사 빛고을포교원 회주)은 학교 발전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기금 전달은 덕문 스님을 대신해 이사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이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공모

1월 21일까지 이메일 · 팩스 접수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표어를 공모한다. 봉축표어는 기본 표어인 ‘우리도 부처님 같이’와 함께 사용되며, 매년 사회적 상황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해 선정된다.

이번 봉축표어 공모는 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글자 수는 10자 내외로, 1인 최대 1개까지 응모 가능하다. 다만 동일 표어일 경우 먼저 접수한 응모작으로 선정된다.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LLF@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5-6643)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종단 내부심사를 거쳐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인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3~10명의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봉축위원회는 “중생구제 염원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이 시대와 함께하는 봉축표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시왕전 위패인등 봉안 안내

- 24시간 인등을 밝혀 드립니다 -



위패인등 접수 안내



◀ 생체보석 위패인등
고인 및 가족의 생체를 담아 보석형태로 제작
제작비 : 200만원
(제작기간 약 30일)



◀ 목위패 인등
위패인등 내부 유품 봉안 가능
제작비 : 20만원
(제작기간 약 10일~20일)

공통사항
- 위패 인등비 : 월 2만원 (CMS로만 납부 가능)
- 1인 1위패인등
- 24시간 위패인등 및 염불 극락왕생 기원
- 축원 : 시왕전 사시예불 축원 (음력 19~23일, 5일간)
- 위패인등 위치 예약 가능

[위패인등 관리 규정]
- 위패인등 제작비는 접수시 일시납이며, 현금/카드/무통장입금가능합니다. 단, 위패인등비(월 2만원)는 CMS 이체만 가능합니다.
- 취소 및 환불규정 : 1주 이내 취소가능
- 위패인등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위패인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위패인등 내용 변경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문 의 접수처 담당자 010-9822-3218 계 좌 신한은행 140-005-663446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관음종 노력 빛났다…조세이 한일 합의 '견인'

2017년부터 日현지서 위령재
日 새기는회 주도로 추모사업
추모비 세우고 유해 발굴 진행
관음종, 잠수조사 꾸준히 지원
한일 종교 · 시민단체 원력 귀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음종은 2017년부터 매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하며 한일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열린 위령재 모습.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어서 보도 통제가 심해 사건은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과는 없고, 183명의 유해 발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조세이탄광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큰 틀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 및 송환의 첫발을 내딛게 된 데에는 한국불교계와 일본 시민단체의 원력과 실천이 뒷받침됐다. 먼저 조세이탄광 사고를 세상에 알린 것은 깨어 있는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 이하 새기는회)'였다.

새기는회는 1991년부터 강제 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국 이름을 찾아 118명의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한국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유족회와 일본 새기는회의 활동으로 2013년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위령비가 건립됐다.

위령비 건립 후 새기는회는 2014년부터 단체 사업 목표를 추모에서 유해 발굴 및 본국 송환으로 전환했다. 이때부터 한국불교계가 이들과 함께했다.

2015년 제1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 히로시마 대회에서 당시 서장은 히로시마 총영사가 한국불교계에 조세이탄광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요청했고,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듬해 1월 30일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위령재를 일본 우베에서 봉행했다. 이후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 무연고 영골에 대한 환국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고, 2017년부터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또한 관음종은 매년 100만엔을 후원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유해 발굴을 지원해 왔다.

관음종의 이 같은 노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여론 환기에 큰 도움이 됐고, 일본 현지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2023년 일본 중의원 회의에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해 발굴 관련 질의들이 이뤄졌으며 2024년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사진전과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새기는회의 노력과 관음종의 지원으로 지난해 8월에는 잠수조사 중 본갱도 안에서 희생자 4명의 유해가 발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는 매우 뜻깊다. 관음종은 1월 14일 발표한 환영 메시지에서 "양국 정상이 일제 치하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유골에 관심을 갖고 발굴된 유해에 대하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첫 쾌거를 만들어 냈다"며 "새기는회가 결성된 지 35년, 관음종이 유골 봉환사업을 선언한 지 11년만의 일"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산적한 문제가 이번을 계기로 하나씩 풀려나가길 기대한다"며 "오로지 한일 양국의 발전적 미래와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우선 생각한다면 풀지 못할 과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기는회 측도 1월 13일 발표한 자료에서 "수습·보관된 유골이 유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당연한 일이 한일 양국 정부의 협력을 통해 실현된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일이 시작되려 한다"고 환영했다.

5년만 100억 후원 '나누며하나되기'…새해엔 '남북교류'

새해 신임 이사장 보광 스님 취임
"삼보정재·공익재산 이웃에 회향"



천태종 산하 NGO단체로 환경과 문화교류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보광 스님)가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소외이웃에 나눈 후원 물품과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불자들의 십시일반과 기업을 포함한 각계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보광 스님〈사진〉을 신임 이사장으로 맞이한 나누며하나되기는 1월 13일 서울 종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속에서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 주목을 끌었다.

천태종은 2002~2005년 개성에 위치한 고려 시대 왕실사찰 영통사의 복원불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해 북과의 인연이 깊다. 당시 개성 복원불사 현장에 수차례 방문한 바 있는 이사장 보광 스님은 "지금은 교류 활성화 공존 프로젝트나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무엇을 추진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를 펼친다면 종단도 함께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누며하나되기는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영통사 복원기념 및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다례재 봉행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성지순례 △영통사 보수 △남북 청소년문화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누며하나되기는 1월 중순, 소외이웃에 나눈 후원물품과 금액이 100억원 상당을 넘어선다. 2022년 2월부터 나눔을 시작한 지 5년만의 성과다.

보광 스님은 "지난해 134개 기업에서 28억3618만9690원 가량의 물품을 후원받았고 이와 함께 90건, 1360만원의 후원금이 답지했다"면서 "100억원 나눔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과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많은 응원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도선사, 금강경 108 순례로 신행 강화

1월 11일 '어울림한마당' 개최
문화포교 · 사중 운영 내실화도



서울 도선사(주지 도심 스님)가 〈우리말 금강경〉 독송과 금강경 108 성지순례 등을 통해 신행 활동 강화에 나선다. 도선사는 1월 11일 서울 도봉구민회관 3층 소강당에서 신년하례회 '2026년 삼각산 도선사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올 한 해 핵심 과제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사진〉

도선사는 올해 △〈우리말 금강경〉 독송 △산신기도 △금강경 108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특히 도선사불교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신행단체 승만회를 결성해 도선사 신행 활동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확대,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추진, 어린이·청소년 불교문화행사 개최, 불교대학 운영으로 문화포교 역량도 강화한다. 사중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종무조직 개편과 혜명복지법인 사무국 이전, 청혜도원 주차장 운영 등 행정·시설 전반 개편도 추진한다.

주지 도심 스님은 신년사에서 "신도들을 화합으로 이끌고 도량을 참회와 수행의 장으로 지켜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원력과 보살행은 반드시 크나큰 공덕으로 회향될 것"이라며 "오늘 행사가 서로 원력을 증장시키고, 도선사의 이름으로 하나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도심 스님은 신도회 임원진도 새롭게 구성했다. 신도회장에는 김학규 회장이 연임됐다.

김내영 기자

파라미타 '관계 중심 사회정서교육' 연수

1월 10~11일, 한국문화연수원
혜주 스님 개발 프로그램 선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무스님)가 1월 10~11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교육,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5학년도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이번 연수에는 전국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선명상의 핵심 요소인 집중, 자기이해, 자기조절, 자비, 상호연결성을 교사들이 직접 체득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돕고자 마련됐다. 또한 교실 내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사회정서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열렸다.

특히 이번 연수는 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인 혜주 스님이 개발한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을 교사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강사진으로는 개발자 혜주 스님과 동국대 아동인성교육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자 WISE 캠퍼스 초빙교수들이 함께해 연수의 전문성과 깊이를 더했다.

연수는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의 이해 △초등학생을 위한 마음의 숲 탐험대 소개 및 체험 △마음 항해일지 소개 및 체험 △중학교 사회정서교육 과정 소개 및 체험 △사회정서교육의 적용 및 계획 등 다채롭고 실제적인 강의로 구성됐다. 참석 교원들은 이론 습득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험 활동과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화림산책 / 花林散策
스님이 한시漢詩로 들려주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 - 한시 408수


묵암默庵 지선志禪 스님은 근세의 선장禪丈이신 경봉정석鏡峰靖錫, 1892-1982선사의 법제자인 벽안碧眼,1901-1988화상의 문인이다. 종범스님이 경봉 - 벽안 - 묵암으로 법맥이 이어졌다고 대중에게 선언한 바 있다. 묵암스님은 평생을 수선修禪에 거처하고 때로 포교布敎에 힘을 기울인 선자禪者이다. 그런데 방선放禪의 여가에 드문드문 한시漢詩를 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지은 한시가 사백여 편이 된다. 스님은 한시집의 내용을 스스로 '소소한 삶의 이야기'라 평했다. '가랑비는 청산을 지나고'에 소박素朴이 피어나고,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함'에 해행보살解行菩薩의 기운이 보이며, '서툰 듯 읊는 벗들과의 만남'에는 세속의 정情 속에 청정각명淸淨覺明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 노치허 선생의 해설 중에서
글.묵암 강대인
펴낸곳.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610쪽 | 27,000원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좌수영로125번길 14-3 올리브센터 2층
Tel. 051-255-0263 / Fax. 051-255-0953 / 전자우편. puremind-ms@hanmail.net

상명대·광운대 불교동아리 창립

조계사, 1월 15일 창립식 개최
각 동아리에 지원금 500만원도
"주변 살피는 따뜻한 불자" 서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 조계사는 1월 15일 관음전에서 '상명대 · 광운대 불교동아리 창립식'을 개최하고 전법 열기에 힘을 보탰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청년·대학생 포교 활성화 흐름이 병오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첫 불교동아리는 서울 상명대와 광운대에서 창립되며 전법 열기에 힘을 보탰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월 15일 관음전에서 '상명대·광운대 불교동아리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과 신도지원단장 성해 스님을 비롯해 각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지도교수, 회장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참된 불자의 길을 서원했다.

상명대 불교동아리(회장 이유경)는 맑은 인연이라는 뜻의 '청연(淸緣)'으로 이름 지어졌다. 교내 불교 문화와 신행 공동체가 부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문제의식과 필요로 설립됐다. 회원들은 2025년 2학기부터 월 2회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불교 기본교리를 익히고 화합을 다져왔다. 현재 1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와 사찰 순례, 불교 관련 박물관·전시 관람, 사찰음식 체험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유경 회장은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인원이 늘고 있다"며 "격주 법회를 통해 일상 속에서 불교 교리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동아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운대 불교동아리(회장 이원중) '청연(靑蓮)'은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로 지친 대학생들이 마음을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2025년 2학기부터 창립 준비와 시범 운영을 거쳐 활동 방향을 정립했고, 현재는 가동아리 형태로 36명이 활동 중이다. 향후 주 2회 정기 법회와 교리·경전 스터디를 통해 정식 중앙동아리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원중 회장은 "창립을 선언했을 때는 회원이 2명뿐이었지만 현재는 36명으로 늘었다"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주지 담화 스님은 "조계사는 강북권을 대표하는 사찰로, 현재 22개 대학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중 14개 대학에서 불교동아리가 운영 중이며, 이번 창립을 계기로 16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모든 대학에서 불교동아리가 창립되고 정식 중앙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명대와 광운대 동아리 이름이 모두 '청연'이지만 하나는 '맑은 인연', 다른 하나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뜻을 지닌다.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교적인 인연"이라며 "불교 용어가 어색한 학생들도 많겠지만, 지도법사 스님과 지도교수, 학생들이 함께 노력해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우고 행복한 동아리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화 스님은 상명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로 법인 스님(소림사 총무국장), 지도교수로 이금룡 가족복지학과 교수를, 광운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로 정오 스님(조계사 포교국장), 지도교수로 황동욱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각 동아리 회장에게는 상월결사가 지원하는 불교동아리 운영지원금 200만원과 창립지원금 100만원, 조계사가 지원하는 불교동아리 발전기금 100만원, 학생회장 장학금 100만원이 전달했다.

법인 스님은 "불교를 잘 몰라도 편안히 마음을 쉴 수 있는 동아리가 되길 바란다"고, 정오 스님은 "청년들이 한국불교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금룡 교수도 "학생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와 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학생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젊은 열정으로 전법의 길을 걷고,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며 주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조계사는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청년 대상 단기출가학교를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2월 14일까지 조계사 포교국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동참자들에게는 장학금이 지원된다.

한마음선원 태국지원 대웅전 상량…전법 '새 기틀' 마련

1월 7일 현지에서 상량식 봉행
지상 4층, 연면적 1669㎡ 설계
혜수 스님 "주인공 믿고 정진을"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지원장 혜단 스님)이 1월 7일 지원 법당과 대웅전 불사 현장에서 화합재와 상량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상량식은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태국지원장 혜단 스님 등 국내외 지원장 스님과 현지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롭게 조성되는 태국지원 대웅전은 연면적 1669㎡(505평)·건축면적 500㎡(151평), 지상 4층(22.8m) 규모로 지상 1~3층 각 431.38 ㎡(131평), 4층 371㎡(112평), 법당 273㎡(82평)으로 설계됐다.

법당에서 진행된 법회에서 참석 대중은 대행 선사의 영상법문을 통해 마음 불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 대웅전 불사 현장으로 이동한 참석 대중은 혜공 스님의 집전으로 '자성본래불'을 정근하며 상량보를 올렸다. 상량보에는 대행 선사의 법문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으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걸림이 없어라. 아미타 한도량"이라는 말씀이 새겨졌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태국지원 불사는 본원을 비롯한 국내외 지원 모두 한마음처럼 여기는 모든 도량의 불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께서는 항상 '주인공을 진짜로 믿으라'고 하셨다"면서 "주인공을 믿고 정진하면 남은 불사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도량이 '걸림 없는 아미타 한마음 도량'이라고 했다. 아미타의 '아'는 '없다'는 부정사고 '미타'는 '수명', '시간'을 의미한다"면서 "수명이 없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계를 벗어난 자리, 그곳이 바로 한마음 주인공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대웅전 불사를 이끌고 있는 태국지원장 혜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말 힘들 때 법당에 앉아 '대행 선사도 부처님도 다 아시겠지.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하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오늘까지 오게 됐다"고 회고했다.

한편, 대웅전 상량을 마친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은 올해 말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130년 만에 인도 환지본처 '피프라와 불탑'

영국 식민지 이후 최초 일반 공개
"진신사리는 부처님 현존 의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멸 후 건립된 근본 8탑 중 하나인 피프라와 불탑의 유물들이 1월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일반에 공개됐다. 약 130년 전 영국 식민지 시대에 발굴된 이후 인도에서 최초로 모든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된 전시다. 이 역사적인 전시에 대해 국제불교 뉴스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이 집중보도했다.

'피프라와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 유물들은 1898년 영국인 윌리엄 클랙스턴 페페가 현재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소재한 피프라와 불탑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발굴된 것이다. 발굴 당시 페페는 발굴한 유물 대부분을 당시 인도 식민정부에 넘겼다. 유물 대부분은 콜카타 박물관에 이관됐으나 사리 일부는 태국으로 옮겨져 법적 발굴자인 페페가 유물의 5분의 1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나 페페 가문은 소유한 유물들을 2025년 5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 출품했고 예상 시작가는 130만 달러였다. 이 경매계획이 공개되자 전 세계 불교계는 일제히 성토했다. 특히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교적 개입을 선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매가 취소됐다. 이후 유물들은 인도정부와 고드레즈 인더스트리 그룹(Godrej Industries Group)의 민관 협력을 통해 7월에 인도로 반환됐다.

1월 3일 뉴델리의 라이 피토라 문화 컴플렉스(Rai Pithora Cultural Complex)에서 개막한 피프라와 유물 특별 전시회 '빛과 연꽃: 눈을 뜬 이의 유물들'은 콜카타 박물관, 뉴델리 국립박물관 소장의 유물과 함께 환수된 유물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전시다. 이 전시는 19세기 후반, 발굴이 이뤄진 이래 불사리를 포함한 모든 유물 컬렉션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 대중에게 공개되는 첫 번째 사례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사리를 봉안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전통을 계승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며 "인도의 문화유산인 이 성보들은 10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왔다"며 기쁜 마음을 밝혔다.

이번 전시는 피프라와 불탑의 복원 모형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가르침과 미학 △전 세계로 확장된 불교미술 △문화재 환수와 노력 등으로 구성됐다. 인도 문화유산연구소의 사비타 쿠마리 부교수는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단순히 역사적 위인이 아닌, 실제로 존재한 한 인물로서의 석가모니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마리 부교수는 "부처님은 실제로 이 유물 안에 깃들어 계신다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현존을 증거한다. 이는 인도국민들과 많은 전세계의 불교도들에게 정서적,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환수된 피프라와 유물들을 이운하는 인도 문화부 가젠드라 싱 쉬카왓 장관(가운데)과 불교계 대표들.
사진 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부처님 가르침 궁금하면 불교대학으로!”

부산 · 경남 불교대 신입생 모집
통도사, 기초–전문 잇는 교육
범어사, 교리 · 경전 중심 운영
홍법사, 1년 과정…명상 신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 경남 주요 사찰이 2026학년도 불교대학 및 경전 강좌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각 사찰은 불교 입문자부터 심화 학습을 원하는 재가불자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교리 교육과 경전 중심의 전문 과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이어간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불교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불교에 관심 있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대학 1·2학년 과정과 불교대학원 과정이 운영된다.

불교대학 1학년 과정은 신도 기본교육 과정으로, 불교입문을 교재로 사찰의례와 예절, 불교 문화, 천수경과 반야심경 등 기초 교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통도사 포교국장 신경 스님과 포교과장 무관 스님이 맡는다.

불교대학 2학년 과정은 신도 전문교육의 기초 단계로, 불교개설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불교 기초교리 전반을 다룬다. 화요 오전반, 수요 오후반, 목요 오후반, 토요 오전반으로 운영된다. 조계종 신도기본교육(불교대학 1학년) 수료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조계종 신도증, 종단 필수교육 이수가 수료 요건이다.

불교대학원 과정은 신도 전문교육 심화 과정이다. 불교상용의례, 대승기신론, 대방광불화엄경, 묘법연화경, 사십이장경, 요범사훈, 초전법륜경, 불교미술설화 등 다양한 경전과 불교 사상을 폭넓게 다룬다.

입학식은 3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불교대학원의 경우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불교대학 1·2학년 과정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접수는 종무소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입학원서와 증명사진 제출이 필요하다. 055-382-7182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운영하는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은 2026년 신입생과 경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본반 과정은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신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1년 과정으로, 사찰예절과 기초교리, 부처님 생애, 보현행원, 반야심경과 천수경 독송, 초발심자경문 등 신행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주간반(오전 10시~12시)과 야간반(저녁 7시~9시)으로 운영되며,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과 양정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기본강좌 외에도 템플스테이와 삼사순례,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경전반은 보다 심화된 불교 이해를 원하는 신도들을 위한 과정으로, 요일별로 다양한 경전과 불교 사상을 배울 수 있도록 편성됐다. 금강경오가해, 능엄경, 원각경, 법화경, 육조단경, 사십이장경, 중국 선문화 등 불교의 핵심 경전과 사상을 폭넓게 다루며, 오전·오후·저녁반으로 나뉘어 수강이 가능하다. 강의는 범어사 교육국 스님들과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이 맡는다. 051-866-7277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 홍법불교대학도 2026년 16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주간반은 오전 11시, 야간반은 오후 8시에 운영된다. 직장인과 일반 재가불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나눠 구성했다.

교육 과정은 신행과정 1년과 경전과정 1년으로 마련됐다. 신행과정에서는 불교입문과 불교개설을 중심으로 불교 전반의 기초를 다루며, 경전과정에서는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공부한다. 이와 함께 명상과정을 신규로 개설 운영해 다양한 방식의 불교 공부 기회를 제공한다. 051-508-0345

교직원 불자들, 선운사서 초심 다져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1월 9~11일…70명 참석



전국 교직원 불자들이 새해를 맞아 고창 선운사에서 초심을 다졌다.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선운사에서 불기 2570년 겨울수련회 ‘노래 몸짓 수행 정진 그리고 사찰 순례’를 진행했다.

수련회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 선운사 교무국장 성종 스님과 연수원장 지태 스님을 비롯해 김경희 회장 및 불자 교사 7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무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교사들의 수행과 인재 양성의 노고를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교육은 중생을 제도하는 가장 위대한 방편”이라며 교직원 불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수행자이자 선지식임을 강조했다.

김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직원 불자들은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배우고 닦아야 할 수행자”라며 “이번 수련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교육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불자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 회장 권상철 교사와 서울 태란희 홍보부장에게 총무원장상이 수여됐다.

수련회 기간에는 지장사 수안 스님이 기타 연주와 노래를 통해 신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전북 사무국장 정서윤 교사가 ‘부처님과 춤을’ 프로그램을 지도했다. 국제포교사 전 회장인 정혜 스님도 법문을 통해 수행의 의미를 전했다. 또 새벽예불과 108배, 참선 수행을 체험했다. 회향식에서는 연합회 임원 총회 인준을 거쳐 회장 연임이 확정됐다.

연임이 확정된 김경희 회장은 “교직원 불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갈 수 있도록 수행과 신행을 잇는 연합회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개최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는 1월 11일 환희요양원 5층 강당에서 ‘제5회 선혜단이슬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선음합창단 창단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에서 선혜단이슬합창단원 어린이들은 명상곡 ‘나모아바로기테사바라’를 시작으로 ‘마음의 그릇’, ‘연꽃법당’ 등으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2부 무대에서는 ‘바람의 노래’, ‘꽃밭에서’ 등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자모합창단인 선음합창단도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부처님을 친양하는 찬불가 합창은 도량에 환희를 더하는 공덕”이라며 “아이들과 자모들이 함께 준비한 이 자리가 불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승가원, 병오년 신년하례 봉행

‘종단 화합 · 자비 실천’ 서원



대한불교화엄승가원(종정 자인 스님)이 새해를 맞아 1월 9일 부산 길상사에서 종단의 화합과 도약을 발원하는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종정 자인 대종사, 총무원장 대각 스님, 원로회의장 태산 스님, 종회의장 혜월 스님, 총무부원장 원각 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와 종도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서원을 다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종정 자인 스님은 신년 법어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사문의 인연으로 종단 창종과 신년법회에 함께하며 불·보살님의 가피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며 “반야의 지혜는 교만과 탐욕의 마음에서 나오는 벽을 허물고 삼라만상이 서로 의지해 존재하는 연기법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설했다.

이어 “지난 시간 각 사암과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정진하며 부처님 도량을 지켜 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법도생과 화합으로 정법을 펼쳐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대각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종단은 화려한 성과보다 기초를 다지며 방향을 점검하는 데 힘을 모아 왔다”며 “병오년은 종도를 모으고 종단의 틀을 바로 세워 이 시대에 부처님 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다짐하는 해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진 신년하례에서는 사부대중이 차례로 합장 배례하며 종단이 나아갈 방향과 수행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경찰청 불자회, 신년법회서 ‘성장 발원’

1월 14일, 효천 스님 법문

부산 경찰 불자들이 신년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의 생애를 수행의 기초로 삼아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는 한 해의 출발을 알렸다.

부산경찰청 불자회(회장 강용창)는 1월 14일 부산경찰청 경승실(1층)에서 2026년 신년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도법사 효천 스님(범어사 교무국장)을 비롯해 강용창 회장, 이상훈 고문 등 경찰 불자회원 20여 명이 동참해 신년 수행의 첫걸음을 함께했다.〈사진〉

효천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깨달음에 이른 길을 자신의 삶에 비춰 보는 수행의 출발점”이라며 “신년 첫 법회에서 부처님의 삶을 되새기는 것은 한 해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했다.

강용창 회장은 신년법회의 의미를 전하며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라며 “신년 첫 법회에서 부처님의 삶을 공부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삼론종, ‘승랑 대사 선양사업 원년’ 선포

1월 10일 신년하례…수계대법회 등 예고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남륜 스님)이 1월 10일 포천 보문정사에서 종단의 결속을 다지는 ‘2026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올해를 ‘승랑 대사 선양사업 원년’으로 선포했다.〈사진〉

법회에는 종정 혜승 스님과 총무원장 남륜 스님, 종회의장 지경 스님, 삼론불교대학 학장 진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종정 혜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이며, 첫 발심이 변하지 않을 때 곧 깨달음에 이른다”며 “천 리 길도 첫발이 중요하듯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삼론종은 더욱 굳건한 종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했다.

종단 차원의 수계법회 활성화도 강조했다. 혜승 스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종단이 해야 할 가장 큰 불사”라며 수계를 통해 신심을 세우고 종도와 신행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승랑대사 선양사업 원년’으로 선포했다.

남륜 스님은 “승랑 대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한국불교 사상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학술·교육·수행 전반에서 그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남륜 스님은 “어려울수록 불필요한 관행을 내려놓고 삼론의 본령인 중도와 공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화합과 소통, 민생의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노덕현 기자

여래종, 8월 창종 60주년 대법회 연다

1월 10일 신년하례…4월 사리보탑 제막



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종단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여래종은 1월 10일 오천 대약사사에서 ‘2026년 종단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새해의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사진〉

법회에는 총무원장 명안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석산 스님, 부원장 혜안 스님, 교육원장 무극 스님, 문도회장 묘선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이창호 여래구도봉사단장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동참해 종단의 안녕과 발전을 한마음으로 발원했다.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전 종도가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는 가운데 여래종의 기반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포교와 수행, 나눔행의 실천을 지속해 세계 불교 속에서 여래종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여래종은 2026년도 주요 종책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종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래종은 오는 4월 22일 창종주 인왕 대승정 연화 사리보탑 제막식을 열어 창종주의 뜻을 되새기고 종단의 정체성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8월 23일에는 ‘인왕 대승정 열반 10주기 및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여래종은 “올해는 창종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창종주 사리보탑 제막을 비롯해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통해 종단 발전의 원년을 삼겠다”고 밝혔다.

신년하례법회 동참 대중들은 올 한 해 종단의 원만한 운영과 불교 중흥을 기원하고 창종 60주년을 맞는 의미를 되새기며 법회를 회향했다.

노덕현 기자

일붕선교종, 신년하례서 화합 발원

1월 15일…삼성사 복구 성금 전달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1월 15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불기 2570년 병오년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종단의 화합과 도약을 발원했다.〈사진〉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만물을 일으켜 세우듯, 지난 한 해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나라와 국민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의 ‘동체대비 세계일화’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어두운 데까지 차별 없이 비춰 화합과 평화와 번영의 대동세상을 향해 붉은 말처럼 용맹하게 달려 나가자”고 당부했다.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은 신년 인사를 통해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불법 홍포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정 대륜 스님은 법문에서 “지금 세상은 ‘나’와 ‘남’을 나누는 분별심으로 소란스럽지만, 거울 속의 그림자와 싸워 이길 수는 없다”며 “갈등은 밖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고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멈춰 안으로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살피라”고 설했다.

이날 뜻깊은 자비나눔도 이뤄졌다. 일붕선교종은 최근 화재로 소실된 용인 삼성사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1170만원을 전달하며 아픔을 함께 나눴다. 대종사 부명 스님도 삼성사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일붕선교종은 지난해 11월 10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승려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품서식에서는 붕원·동청·지언·경담 스님이 대종사 법계, 제법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했다.

노덕현 기자

“화합·소통으로 교구 발전 이끌겠다”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연수 스님 취임법회 봉행
전북교구 새로운 도약 다짐
전임 진성 스님에게 공로패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 오른쪽)이 1월 15일 신임 전북종무원장 연수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태고종 전북교구 제20대 종무원장에 연수 스님 취임했다. 연수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화합과 소통을 통한 교구 발전을 제시했다.

태고종 전북교구는 1월 15일 전주 파티원 코넬홀에서 ‘제19·20대 종무원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동방불교대학장 법담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 호법원장 구산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임기 동안 전북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제19대 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진성 스님은 “그동안 전북교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해 주신 모든 스님과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소임은 내려놓지만 앞으로도 교구와 종단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제20대 종무원장으로 취임한 연수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교구 운영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제시했다. 연수 스님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부처님의 자비 정신과 가르침을 등불 삼아 교구 발전에 매진하겠다”며 “특히 사부대중의 화합과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북교구가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화합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수 스님은 이어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구를 운영하며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의 흐름을 교구의 현실에 맞게 이어 가겠다” 며 “포교와 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 쉬는 전북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수 스님은 진성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 스님도 진성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교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진성 스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임하는 진성 스님에게 종도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으며, 전북종무원을 이끌게 될 연수 스님에게 임명장과 선물을 함께 전달했다.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신임 전북종무원장 연수 스님은 높은 수행력을 가졌다.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소통해 종단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 원로의장 도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해 화합하는 교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불교종단聯 “울산불교 세계화 원년” 선언

1월 12일, 해남사 보광당서 신년인사회

3대 신년 중점과제 발표 ‘눈길’
수행 · 사찰음식 등 확산 추진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1월 12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올해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울산 불교계가 신년인사회를 열고 ‘울산불교 세계화 원년’을 선언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1월 12일 울산 해남사 보광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과 정토사 덕진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삼광사 지광 스님, 백양사 지선 스님, 문수사 문성 스님, 태화선원 명본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윤건우 울산불교신도회장, 이진용 울산불교BBS 사장, 국회의원과 기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원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울산 불교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태화강에 밝혀질 지혜와 희망, 기쁨의 연등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불교는 협동과 상생의 정신으로 성장해 왔다”며 “벽돌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서로 힘을 모아 울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올 한해 울산 불교계가 추진할 3대 중점 과제로 △태화강을 중심으로 연등과 경관조명을 확대해 세계적인 불교문화 공간 조성 △태화강 국제 사찰음식 문화제 개최를 통한 사찰음식의 세계화 △국제 명상대회 개최를 통한 마음 치유와 수행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혜원 스님은 “태화강을 낮에는 정원, 밤에는 치유와 사유의 빛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 울산을 국제적인 불교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시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는 불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건우 울산불교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위로하고 나누며 성장해 왔고, 그 신심과 헌신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실천을 본받아 지역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향기를 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국제전통음식페스티벌과 태화강 국제명상전진대회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또 울산불교가 문화·명상·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불교문화 콘텐츠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 공유됐다.

모범불자 시상식도 열려 정심행 불자가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금강행 불자가 울산불교방송 사장 표창을 받는 등 모두 5명이 표창을 받았다.

울산지역 사찰림 보호와 상생 발전을 위해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와 울산그린트러스트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에 불교계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총화종 신년하례…‘총화인권상’ 제정

1월 9일 총본산 실상사서
“자비 화합의 초심 새기자”



대한불교총화종(종정·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1월 9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대적광전에서 병오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종정 혜각 스님은 신년 인사말에서 “일심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고,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으며, 나지 않으면 마음도 없다”며 “올 한 해 초심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법연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종회의장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 종단 운영이 종헌과 종법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도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종단의 위상과 역할을 함께 세워가자”고 밝혔다.

이날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원장 성혜 스님(경북교구 무량사 주지), 조직부장 지명 스님(부산교구 태광정사 주지), 명혜 스님(경남교구 혜원암 주지), 선효 스님(제주교구 흥국사 주지)과 회원 사찰 추천으로 선정된 모범 불자로 원주 무량사 반야원 불자, 진시화 불자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법회 후 대적광전에서는 부산 태광정사(주지 지명 스님) 소속 포교사 김치열(66) 불자의 출가를 위한 1인 삭발식이 봉행됐다. 김치열 불자는 법명 ‘원견’을 받고 태광정사에서 3개월간 행자 교육에 임하게 된다.

한편, 총화종은 올해 ‘총화인권상’을 제정하고 매년 영동지역에서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할 예정이다.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은 창종기념일에 맞춰 오는 4월 열린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불교 “초심으로 화합·자비 실천”

창원불교聯 등 신년하례회
법안 스님 “지역 공동체 구현”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와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이상연)는 1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 1층에서 창원불교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창원 성주사 주지)과 상임고문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상연 창원불교총연합신도회장, 조보현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안 스님은 신년사에서 “지난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켜온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연합회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은 중심을 지키며 서로를 보듬어 온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참된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과 정진을 멈추지 않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연 회장은 “지난 한 해 봉축 행사와 불교 문화·나눔 활동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원만히 이루어져 불교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새해에도 신도회가 중심이 돼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연합회와 신도회가 힘을 모아 시민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수행과 자비, 화합의 가치를 다시 새기고 창원불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신년회를 회향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 지역불교 이끌 중·고학생회 창립

1월 11일 창립법회…장학 지원, 신행 조직으로 결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는 1월 11일 설법전에서 중·고등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고 청소년 포교의 첫 발을 내디뎠다.〈사진〉

중·고등불교학생회 창립은 성주사가 수년간 이어온 장학불사가 신행 공동체로 확장된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주사는 2020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동지 무렵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은 200여 명으로, 장학금은 1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인연이 학생회 창립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청소년 신행 조직이 출범하게 됐다.

법안 스님은 법문에서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 있고 당당한 불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학생회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가르침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성주사 중·고등학생 불교학생회는 매월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양사, 서옹 대종사 22주기 추모다례재

1월 8일 대웅전 · 조사전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월 8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서옹당 상순 대종사 제22주기 추모다례재’를 열고 서옹 스님의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사진〉

원로의원 성오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일본 유학 시절 발표한 논문 등 학문적 성과가 널리 공유돼 후학들의 공부 자료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백양사 사부대중은 참사람을 강조하신 서옹 큰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추모다례재에 동참한 대중은 조사전으로 자리를 옮겨 다례를 봉행하며 스님의 덕화를 기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흥사, ‘미르닐 겨울 명상캠프’ 개최

1월 10~11일, 30명 참여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3회 용흥사 미르닐 청소년 겨울 명상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캠프에는 덕유 스님을 비롯해 총무 덕진 스님,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하담 스님, 정광고 교법사 진현 스님, 형진 스님, 능견 스님과 자원봉사 교사, 불교종립 정광고 학생 30명이 동참했다.

주지 덕유 스님은 인사말에서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망경산사, ‘청년 힐링 템플스테이’ 성료

광명 거주 청년 등 초청



영월 망경산사(주지 하원 스님)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경기 광명시 거주 청년 및 취업준비생들을 초청해 진행한 ‘청년 힐링 템플스테이’를 성황리에 회향했다.〈사진〉

망경산사가 주최한 이번 프로그램은 광명시 청년센터 ‘청년동’과 예비사회적기업 ㈜위드라잇’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망경산사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주지 하원 스님과의 차담을 나누며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았다. 하원 스님은 “이번에 맺은 소중한 인연이 청년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정법사, 영축불교대학·대학원 졸업식

1월 10일 만불보전서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1월 10일 만불보전에서 영축불교대학 졸업식과 대학원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전공 27기 주·야간 졸업생 45명, 교양 28기 주·야간 수료생 50명, 대학원 과정 수료생 123명 등 218명이 학업을 마쳤다.

광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양 28기 주·야간반이 비로선원 불사 동참금 100만 원을 보시해 의미를 더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김석윤 배후설’은 역사왜곡”

봉려관불교문화硏 학술세미나서
연구원장 혜달 스님 비판 · 주장

김석윤, 부인 4명 둔 ‘보천교도’
제주불교 항일운동 주역 탈바꿈
김석윤–법정사 항일 연계 근거無
근대 제주불교 출가 순서도 바꿔
“제주불교 · 항일 주역 김석윤 차지
봉려관 · 도월 등 생애 업적은 매몰”

제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10일 열린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V’ 학술세미나에서 연구원장 혜달 스님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성수 동국대 겸임교수(불교신문 기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학술연구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허남춘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제주 법정사 스님들과 주민들이 주도한 제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으로, 김연일 스님 등 400여 명은 집단으로 무장해 2일 동안 조직적으로 일제에 항거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에 김석윤(1877~1949)이 인적·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핵심적 동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근대 제주불교사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를 이어 가고 있는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김석윤 배후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혜달 스님은 1월 19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 극장에서 열린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V’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운동의 왜곡상 고찰-김석윤 배후설을 반박하며’에서 “2006년경부터 한금순을 통해 제기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김석윤 배후설은 역사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혜달 스님에 따르면 한금순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김석윤이 근대 초기 제주불교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고 관음사에 항일인사를 집결시키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전제로는 김석윤-강창규-방동화의 출가 인연, 김석윤이 관음사 승려 생활 중 1909년 제주의병에 참여 등을 한금순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혜달 스님은 김석윤은 출가한 승려가 아닌 ‘보천교도’임을 분명히 했다. 김석윤의 동생인 김석익(1885~1956)이 쓴 ‘망형석성도인행록(亡兄石惺道人行錄)’에는 김석윤이 첫째 부인에게서 1남 3녀를 출산하는 등 4명의 부인에게서 총 8명의 자식을 두었다. 또한 보천교 중앙본소가 발행한 〈보광〉 창간호에는 김석윤을 ‘전의사장 김종화(典儀司長 金鐘華)’로 기록하고 있는데, 김종화는 김석윤의 이명(異名)이다.

혜달 스님은 “김석윤이 1907년 이후 불교 제도권에서 사미계를 수계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의 불교 수행 및 포교활동 정황도 없었다. 그의 승려 흔적은 동시대 기록물, 동생의 저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조선 불교 수계제도를 준용하면 김석윤이 1894년 출가, 관음사에서 승려생활을 하며 1909년 제주의병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억설(臆說)이며 1949년 사망할 때까지 승려였다는 주장 역시 궤설”이라고 지적했다.

배후설 전제 중 하나인 김석윤-강창규-방동화의 출가 인연에 대해서는 “강창규, 방동화의 ‘이력서’, 김석윤의 ‘승적부’ 기록을 교차 검증 없이 사실로 인정한 결과”라고 봤다.

혜달 스님은 “강창규, 김석윤, 방동화와 관련한 일제 사법기관 문서와 가족상황, 구술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은 1909년 제주의병,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에 불교 제도권 승려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석윤 외에도 강창규 역시 1890년대 초반부터 부인과 딸 2명이 있었고 1900년 아들이 출생했으며 사미계 기록은 없다. 방동화의 출가는 혜관·일조 스님이 구술을 통해 ‘석방 이후 출가’를 증언하고 있어 운동 당시에는 ‘방 처사’였다는 게 혜달 스님의 설명이다.

혜달 스님은 “김석윤과 법정사 항일운동 핵심 주모자들 간 관계는 모두 허구”라며 “법정사 항일운동 주모자 중 김연일, 강민수, 정구용만 기록상 승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혜달 스님은 이 같은 주장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근대 제주불교 승려들의 출가 순서마저 ‘강창규-김석윤-봉려관’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스님은 “회명이 작성한 ‘관음사개금원문’, 오영의 ‘영주기행’ 등 9건의 문건에 따르면 1702년 이형상 목사의 사찰 훼철, 승려 축출 이후 제주도에 불교를 처음 펼친 승려는 봉려관이었고 최초 활동지는 관음사였다”면서 “근대 제주불교 승려의 출가 순서는 ‘봉려관-안도월-오이화’ 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혜달 스님은 “한금순의 연구로 근대 제주불교 역사는 물론 제주 항일운동 역사마저 주요한 자리는 김석윤이 차지했다”면서 “그 결과 근대 제주불교의 시작을 열고 중흥을 이끈 봉려관 스님과 관음사 5대 주지 도월 스님의 생애와 업적은 오히려 감소·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이견은 건강한 연구이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역사의 근간까지 재편한 행위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학술세미나에서는 근대 제주불교사와 제주불교 연구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이성수 동국대 겸임교수(불교신문 기자)는 ‘근대 제주불교와 만암·묵담 스님의 역할’을 통해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 과정에서 만암 스님과 묵담 스님이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고, 일제강점기 육지 사찰의 제주 포교 활동이 제주불교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겸임교수에 따르면 만암 스님은 1916년부터 1943년까지 20여 년간 백양사를 이끌면서 전국 60여 곳에 포교소를 설치했다. 이 중 26곳의 포교소를 제주도에 설치하며 백양사를 31본산 중 가장 많은 제주 포교소를 둔 본산이 됐다.

묵담 스님은 제주에서 수차례 보살계 법회를 거행하고 체계적인 교화사업을 전개했다. 묵담 스님의 보살계 법회는 제주 지역 신도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로서 정체성을 확립시켰으며 제주불교 대중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 겸임교수는 “만암 스님이 포교소 설치와 승려 파견, 재정 지원을 통해 제주불교의 외형적 기반을 조성했다면 묵담 스님은 보살계 법회와 교화 활동을 통해 제주 신도들의 내면적 신심을 고취하고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제주불교의 연구현황과 과제-제주 관음사, 법정사 창건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학술연구교수는 근대 제주불교 중흥과 관련된 주요 연구주제인 관음사와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연구를 조망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교수는 △선행연구 검토와 논거로서 인용 자료의 명확한 제시 △단순 추측이나 유추 아닌 근거를 통한 논증과 검증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연구교수는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향토사적 자료와 구술자료, 문화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자료의 축적을 통해 민중의 삶과 함께 한 제주불교만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불교의 특징을 지키고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논증을 통해 먼저 제주불교의 본래 모습을 알아보는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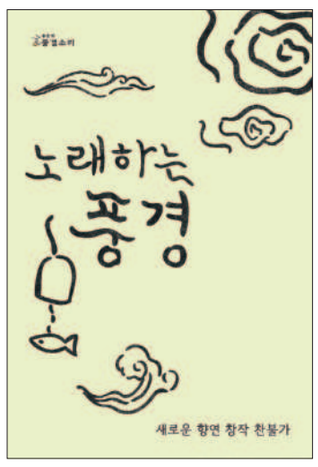
주제 발표 뒤에는 허남춘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세 명의 발표자와 논평자인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법진 스님, 탁효정 순천대 학술연구교수, 양혜원 서울대 규장각 객원연구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讚佛藝人’ 이종만이 돌아왔다

〈찬불예인〉

풍경소리 ‘노래하는 풍경’ 발매
작년 여름 ‘60집’으로 1차 회향
이후 전국 스님들 격려 이어져
트로트 찬불가 선보이며 리뉴얼
“폭넓은 장르로 찬불가 대중화”



새로 리뉴얼해 발매한 풍경소리의 창작 찬불가 앨범 ‘노래하는 풍경’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여름 ‘풍경소리 60집’으로 회향했던 ‘찬불예인(讚佛藝人)’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사진〉가 새로운 찬불가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좋은벗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프로젝트 창작 찬불가 앨범 ‘노래하는 풍경’을 발표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풍경소리는 1995년 매년 여름과 겨울 창작 어린이 찬불가 음반을 발매해 왔다. 본래 재정난으로 10집까지 발매하려고 했으나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풍경소리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향’을 발표하고 마지막 앨범인 ‘풍경소리 60집’을 선보였다. 풍경소리 음반을 통해 세상에 소개된 찬불동요, 찬불가만 700여 곡에 이르며, 이는 단일 음반 중에는 한국 최대 수준이다.



이 대표의 회향은 창작 찬불가를 제작·보급할 사람과 단체가 없어졌음을 의미했다. 이를 안타까워한 것은 누구보다 전국의 스님들이었다. 회향 소식이 알려지자 스님들이 이 대표를 찾았고 격려와 지원을 이어 갔다. 조계종 포교부도 창작 찬불가 앨범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덕신 스님 헌정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이어 가며 틈틈이 인연됐던 스님들에게 인사했는데 많은 격려를 해 주셨다”면서 “종단에서도 창작 찬불가에 지원과 관심을 줘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찬불가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풍경소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번 앨범은 전국 사찰합창단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부터 트로트까지 장르의 폭이 넓다.

불교합창단이 좋아할 만한 교과서적인 노래로는 ‘관세음을 부르리(덕신 스님 작사·서근영 작곡·영화중창단 노래)’, ‘와불친견(고산 최동호 작사·이종만 작곡·유훈석 노래)’ 등을 꼽을 수 있다. 수좌이자 염불행자이면서 찬불가 작사가이기도 한 함현 스님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작곡 이종만·유현주 노래)’를 선보였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일등 공신인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은 어린이 찬불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을 나들이’ 등을 작사 작곡하고 부산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과 직접 녹음작업에 참여해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찬불가 대중화에 역점을 둔 ‘마음속 작은 빛(정유탁 작사·작곡)’과 트로트 찬불가 ‘실타래 인생(차영화 작사·이종만 작곡·나현아 노래)’도 앨범에 수록됐다.

이종만 대표는 “‘풍경소리 60집’으로 찬불가 운동 30년을 회향하며 일단락을 지었다”면서 “새로 리뉴얼된 ‘노래하는 풍경’은 지난 ‘풍경소리’의 전통을 계승하며 폭 넓은 장르를 개발해 찬불가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진집 ‘사찰음식-시선’에 담긴 발우공양 준비하는 모습.

사찰음식 면면들 렌즈에 담다

문화사업단, 사진집 ‘사찰음식-시선’ 발간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 제작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의 면면들을 렌즈에 담아낸 사진집이 발간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불교문화사진집 〈사찰음식-시선〉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문화로, 승가의 일상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해지지만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를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화사업단은 이 같은 문화적 가치가 지난해 5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찰음식의 현장성과 정신적 메시지를 사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집을 기획·제작했다.

불교문화사진집 〈사찰음식-시선〉은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운문사, 청암사, 대원사에서 △발우공양 △전통공양간 △울력 △마지 △장독대 등의 현장을 렌즈에 담아냈다.



문화사업단이 발간한 불교문화사진집 ‘사찰음식-시선’.

해당 사진집은 향후 관련 콘텐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상업적 유통이 아닌 공공 목적의 기록물로 사용된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사찰 공동체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생활문화의 가치가 공적으로 확인된 의미”라며 “이번 사진집은 판매용이 아니라 기록과 교육, 확산 등을 위한 비매품 자료로서 전통문화의 현장성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온전한 인격을 지향하는 가르침

㉖ 원만구족(圓滿具足)

圓 滿 具 足

평소 언행이 모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이웃과 갈등 없이 지내는 사람을 우리는 ‘원만한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원만’은 이러한 일상적 의미와는 다르다. 수행을 통해 지혜·자비·복덕을 두루 갖추어 완성이 극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에 ‘구족(具足)’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그 완성이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수행공동체 승가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함에 있어 첫째는 귀의불 양족존(歸依佛兩足尊)이다. 이는 지혜와 복덕이라는 두 덕목을 온전히 갖추신 부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서원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원만구족함이 어찌 지혜와 복덕에만 한정되겠는가. 고요·청정·평온·기쁨의 열반을 성취하신 부처님은 중생을 향한 연민과 자애가 충만한 분이다. 중생의 마음과 삶을 정확히 통찰하여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셨고, 승가를 법의 정신에 따라 이끄셨다. 나아가 계급·신분·성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을 부정하며 평등과 자애의 세상을 지향하셨다. 부처님을 부르는 열 가지 명호와 삼명(三明), 육통(六通)의 신통력은 그분이 원만구족자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원만’이란 전인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들의 충족을 뜻한다. 연기론에 따르면 개별과 전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컨대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율·선정·통찰지라는 삼학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며, 통찰지의 성숙 역시 계율과 마음의 집중을 바탕으로 한다. 팔정도는 여덟 가지 수행 항목으로,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 바른 견해가 결여된 사유와 언어는 완전성에 이를 수 없고, 참된 보시의 정신 또한 자기 질서를 세우는 지계 수행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공자 역시 〈논어〉 ‘학이’편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라고 했다. 이는 모두 사유와 수행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생겨나는 경직과 편협의 위험을 경계한 말이다.

오늘날 불자들의 신행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명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체적 사유와 인문적 성찰,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모습도 적지 않다. 원만구족은 재능과 기능에서 만능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온전한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다. 삼학·사성제·팔정도·사무량심, 그리고 세간과 출세간의 이제(二諦)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왜 부처님은 ‘각기 다른 꽃들의 어울림’에 주목하여 경전의 이름을 〈화엄경(華嚴經)〉이라 하셨을까. 곰곰이 되새겨 보면, 그 뜻은 분명해진다.

〈화순 불암사 주지〉

2026년도 불이상 수상자 추천 공고

연구 · 실천 부문…오는 2월 6일까지 접수

한국불교 중흥과 발전을 이끄는 인재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제41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 접수가 시작됐다.

불이상위원회는 2026년도 불이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접수 분야는 연구 부문과 실천 부문이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된다.

추천 접수는 타천 방식이며 개인 및 기관의 자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접수 기한은 오는 2월 6일까지며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공모양식은 접수처 이메일(burisince1986@gmail.com)로 요청하면 된다.

한편, 불이상은 불교학 연구와 사회 실천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쌓아 온 인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중일 기자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는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연기’를 52개의 간략한 게송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짱캬 롤빼돌제가 주석을, 역주자가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쫑카빠 게송, 짱캬 롤빼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신국판/316쪽/값 20,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4~1/2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 필사집	편집부	담앤북스
2	무비스님의 신심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3	법구경 마음공부	정운	유노북스
4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박산무이스님의 참선경어)	원택	장경각
5	금강경 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6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7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8	초역 부처의 말 필사집	편집부	포레스트북스
9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마가	불광출판사
10	인과경	지묵	우리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이유없는 정성 이유없는 기쁨	월인	히어나우시스템
3	초기불교 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4	맛지마니까야(1)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마하시사야도의마하사띠빳타나숫따대역	일창 담마간다 옮김	불방일
6	망설일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7	이와같이 살았으면	여천 무비 풀어씀	염화실
8	불교와에 크리튀르	시모다 마사히로	운주사
9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맑은소리맑은나라
10	불멸(3)	이각	지혜의눈

한마음선원 지원 불사 면면을 담아내다



한마음선원 불사 이야기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
한마음선원 출판부
2만5000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소개된 7개 지원 불사 기록
지역 스님·신도 원력 뒷받침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불사 이야기: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은 전국 한마음선원 15개 지원 중 7개 지원의 개원과 불사 과정이 담겨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의 도량탑 제막식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난 이런 불사가 참 좋아. 이게 진짜 불사야. 저 벽돌 하나 모래 하나하나가 다 신도님들의 피눈물이 아니니? 어느 누가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신도들의 눈물 어린 불사가 진짜 불사이고 정말 좋아."

1987년 6월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개원하고 신도들의 정성으로 법당을 마련한 1989년 9월, 준공법회를 마친 대행 선사(1927~2012)가 제주지원 동산에 올라 준공된 법당을 바라보며 한 말이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이 한마음선원 지원의 개원과 불사 과정을 담은 〈한마음선원 불사 이야기: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을 출간했다. 책에는 전국 한마음선원 15개 지원 중 7개 지원의 개원과 불사 과정이 담겨 있다.

대행선연구원은 2016년 개원 이래 1년에 4회 계절발표회라는 이름의 학술발표회를 진행해 지난해 12월까지 25회에 이르렀다. 2023년 3월 제14회 계절발표회부터는 '지원소개'의 자리를 마련해 진주지원(지원장 혜근 스님)을 시작으로 지원장 스님이 직접 개원과 불사 과정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이후 7월 제15회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 12월 제17회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 2024년 3월 제18회 제주지원(지원장 혜묘 스님), 7월 제19회 강릉지원(지원장 혜인 스님), 9월 제20회 대구지원(지원장 혜공 스님), 12월 제21회 포항지원(지원장 혜문 스님), 2025년 3월 제22회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춘 스님)까지 총 8개 지원이 소개됐다.

〈한마음선원 불사 이야기〉에는 연구원 계절발표회를 통해 소개된 8개 지원 가운데 7개 지원의 개원과 불사 과정이 담겼다.

대행선연구원은 "한마음선원의 지원은 안양본원에 다니던 지역 신도들이 지역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됐고, 본원이나 다른 지원의 힘을 빌지 않고 오직 그 지역 신도들의 원력으로 개원했다"면서 "그러므로 지원이 개원하고 불사를 하는 데에 각 지원 스님들과 신도들이 큰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다. 이 책에는 그렇게 손 없는 손과 발 없는 발로 이루어진 지원 불사의 노력들이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전했다.

천진불 미소 담은 명상시



맑은 날
김남희 지음
이지선 그림
운주사
1만2000원

수행하는 시인의 두 번째 동시집
어린이 눈높이로 본 명상의 세계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으며 씨익 웃어 봅니다 / 거울 속의 나도 똑같이 웃습니다 // 찡그릴 때도 웃을 때도 말없이 비춰 주는 거울 / 거울에는 아무런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 환할 때 더욱 빛이 나는 거울 /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거울' 중에서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이어오고 있는 김남희 시인이 어린이들의 동심과 명상을 주제로 동시집을 펴냈다. 시인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업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사랑, 친구와의 놀이와 즐거운 학교생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다치고 힘든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는 명상과의 만남이 바른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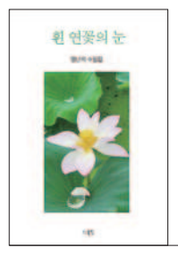
"눈이 가늘게 / 떠집니다 // 입꼬리가 / 올라갑니다 // 마음속에 / 동심원이 //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미소' 전문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순수, 소소한 일상과 바람,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동시들은 어른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 이지선 작가의 삽화도 독자를 동심으로 이끈다.

각산 스님(한국명상총협회장)은 "사유의 깊이를 지닌 시인은 어린이의 마음과 눈높이로 명료한 명상의 세계를 열어 보이고자 한다"며 "〈맑은 날〉에서 내면에 깃들어 있는 동심과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다"고 추천사를 남겼다.

시인은 현재 한국창작문학인협회 부회장,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이사, 참선단체 수선회 회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생과 사의 동시성을 응시하다



흰 연꽃의 눈
맹난자 지음
도서출판 북인
1만8000원



한국 수필계의 원로 맹난자 작가가 4년 만의 신작 에세이를 펴냈다.

원로 수필가의 4년만 신작
사유와 침묵의 내면 기록

한국 수필계의 원로 맹난자 작가가 4년 만에 신작 수필집 〈흰 연꽃의 눈〉을 펴냈다. "양피지 위에 썼다가 지운, 그리고 다시 눌러쓴 글자들"이라는 고백처럼, 이번 책은 삶의 흔적 위에 덧씌워진 사유와 침묵의 결을 따라가는 내면의 기록이다. "결국은 무(無)에 이르는 도정이었다"는 그의 말은, 수행자의 고백처럼 담담하고도 단정하게 책의 전반을 관통한다.

표제작 '흰 연꽃의 눈'에서 작가는 노쇠와 질병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음을 담담히 응시한다. 봄을 만개시킨 목련 앞에서 "이 몸도 낙화(落花)하는 일"을 말하면서도, 〈연화경〉의 화과동시(花果同時) 사상처럼 생과 사의 동시성을 투명하게 응시한다.

생(生)의 찰나마다 이미 죽음이 스며 있고, 사(死)의 이면에는 다시 생이 움튼다는 깨달음은, 그의 필명 '관여(觀如)'가 지향해 온 '있는 그대로 봄'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흰 연꽃의 이슬방울에서 생사즉(生死卽)의 실상을 본다는 고백은, 오랜 침잠 끝에 얻은 수행자의 통찰에 가깝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글쓰기는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선언처럼, 글쓰기를 수행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난다. '마음 밖에 법이 없다'에서 그는 마조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분별과 간택을 내려놓을 것을 다짐하며,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비추는 길을 모색한다. 글은 일기나 기록을 넘어 자기성찰의 장이자 사유의 안식처로 자리한다.

제2부에서는 아름다움과 행복, 이름 등 일상의 개념을 다시 묻는다.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찬란한 존엄을 발견하는 '아름다움, 그 비의어를 생각하다', 오온이 빚어낸 판타지로서의 '행복'을 성찰하는 '행복에 대하여' 등에서, 작가는 집착을 비워 내는 불교적 통찰과 문학적 언어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이름조차 물 위에 새겨 흘려보내겠다는 고백은 무주(無住)의 삶을 향한 그의 지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제3부와 제5부는 수필과 작가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다. 수필의 정체성과 연원을 따지는 글들은, 장르 논의를 넘어 '글이 곧 사람'이라는 수필의 본질을 다시 일깨운다.

제4부 '죽음을 그리다'는 책의 정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법정 스님으로부터 "가난이 우리를 이만큼 키웠습니다"라는 글귀를 받고 평생 간직해 왔다는 이야기는, 무소유의 삶에 대한 동경과 실천의 흔적을 보여 준다. 책을 버리며 존재의 덧없음을 체감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학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선종(善終)'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허수입(虛受入), 바람 따라 갈란다." 작가의 말처럼, 집착을 풀고 무(無)를 향해 걸어가는 원로 수필가의 뒷모습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직면하도록 이끈다. 여수령 기자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림이 있나요?"

서울대 철학박사 보일 스님의
내 삶을 위로하는 명작(名作) 읽기!

34명 예술가의 삶과 작품으로
배우는 인생의 지혜





미술관에 간 스님
알고 보면 더 힘이 되는 미술 명작 수업
보일 지음 | 360쪽 | 20,000원 | 불광출판사

"예술은 고통을 다루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고통 속에서 해방의 길을 찾아낸 대가들의 기록,
불후의 명작을 불교적 사유와 통찰로 재해석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캔버스 위에서 나눈 선문답



미술관에 간 스님
보일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원

미술관에서 만난 34명의 선지식
명작이 건네는 위로·가르침 안내
"예술, 고통 다루는 다정한 방식"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보일 스님은 1월 13일 서울 카페콤마에서 〈미술관에 간 스님〉 출간 기념 북토크를 개최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병으로 누이를 잃고 평생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뭉크, 불편한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야 했던 톨루즈 로트렉, 불의의 교통사고로 서른 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던 프리다 칼로,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사랑의 향기를 그려 낸 샤갈.

이들은 수많은 상실과 좌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림을 그렸고, 자신의 고통을 창작의 에너지로 전환해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우리가 그들의 그림을 보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은 작가의 삶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일 스님(AI부디즘연구소장)은 "이들은 붓다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방의 길을 찾아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예술 작품을 보는 스님의 눈길은 작품의 미학적 가치보다 그 뒤편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생애와 마음의 궤적에 머문다. 예술은 그렇게 탄생한 고통의 열매이며, 동시에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네는 자비의 손길이라는 것이다.

〈미술관에 간 스님〉은 보일 스님이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삶의 고단함을 보듬어 주는 예술 작품을 소개한 책이다. 명작의 이면에 가려진 상처와 좌절, 절망과 극복의 이야기를 불교적 사유로 읽어내며 미술 감상이 곧 수행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책에는 34명의 예술가가 등장한다. 카라바조, 고흐, 뭉크, 프리다 칼로, 샤갈에서 로스코, 바스키아, 뱅크시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양식을 넘나드는 이들의 작품은 모두 한 인간이 고통과 화해하고 이를 창작으로 승화시킨 기록이다. 스님은 그 작품 속에 고(苦)·무상(無常)·연기(緣起)의 진리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 나간다.

스님은 잭슨 폴록이 화면 위에 흩뿌린 혼돈의 궤적에서 화엄의 법계연기(法界緣起)를 읽고, 앤디 워홀의 끝없이 복제된 이미지 속에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을 되새겼다. 마르셀 뒤샹이 변기 하나로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부술 때 선사의 거침없는 할(喝)과 방망이 소리를 들었고, 마크 로스코의 거대한 색면 앞에서는 침묵의 언어로 전해지는 깊은 위로와 공(空)의 세계를 만났다.

보일 스님은 "붓다의 가르침이 삶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시작됐듯,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 역시 시대의 아픔과 개인적 고뇌를 온몸으로 껴안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며 "그들은 캔버스 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본질을 묻고, 존재의 허무와 마주하며, 찰나의 아름다움 속에서 영원을 길어 올렸다"고 말한다.

특히 AI(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온 인간 소외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예술이 지닌 치유와 통찰의 힘에 주목한다. 미술 작품과의 깊은 교감이 단순한 감상을 넘어 데이터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각을 일깨우고 '지금 여기'의 나를 자각하게 하는 수행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일 스님의 설명을 따라 삶과 죽음의 경계, 고통과 불안의 시선이 담긴 작품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 책이 미술관으로 가는 안내서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인 이유다.

월간 '불교문화' 디지털 웹진 전환





월간 '불교문화' 웹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이 발간하는 불교 대중 문화지 월간 '불교문화'가 올해 1월호(통권 제30호)부터 '디지털 웹진'으로 전면 전환했다. 앞으로 '불교문화'의 콘텐츠는 모바일과 웹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은 연 1회 우수 콘텐츠를 담은 종합호(오프라인 종이 잡지)도 발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후 첫 호인 1월호 특집은 '공덕이란 무엇인가'이다. '복을 비는 일'로만 오해되기 쉬운 공덕을, 불교가 오래도록 답해 온 질문인 "무엇을 쌓고, 무엇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로 다시 풀어 본다.

구상진 진흥원 이사장은 '전법이 최고의 공덕이다'를 통해 8정도·6바라밀 등 공덕행의 핵심이 외형적 '유루복'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을 통해 해탈로 나아가는 무루공덕에 있음을 강조한다.

송덕사 주지 원빈 스님은 'AI시대에서 공덕의 자산을 늘리는 법'에서 재물의 지혜를 갖추되 수행 정진을 놓지 않고 공덕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온전한 행복에 이를 것을 권한다.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는 '일상 속 공덕의 실천적 의의'에서 일상 속 공덕을 자기 성찰(자이)과 사회적 실천(이타)의 조화로 살리면 SBNR(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세대와도 접점을 넓혀 '진정한 행복·깨달음'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정리한다.

혜담 스님(불광법회 선덕)은 '불성을 지닌 사람은 모두 공덕을 지니고 있다'를,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는 '나눔과 회향'을 통해 공덕의 의미를 되짚는다.

이와 함께 '불교 핫플레이스-설악산 봉정암', '사찰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양주 회암사', '슬기로운 수행생활-글렌 라마' 등의 특집을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일상의 물음에 답하는 불교의 지혜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 박경미 옮김
운주사 / 2만4000원

명상·수행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20개 주제로 엮은 마음챙김의 길

현대인에게 명상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수행 중 겪는 의문과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이르면 발걸음이 머뭇거린다. 세계 각국을 다니며 수행을 지도해 온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애칭 '반테 G')의 신작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을 밝혀 준다.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는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명상과 불교 수행에 대해 받은 수많은 질문에 일상의 언어로 답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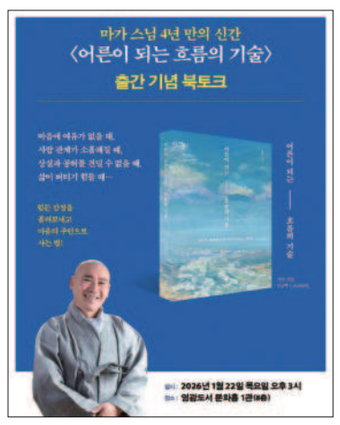
책에는 "바쁜 일상 속 명상은 어떻게 실천할까", "업과 윤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좌선 중 통증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깨달음은 가능한가"와 같은 질문과 스님의 답이 담겨 있다. 스님은 추상적인 설명 대신 경전의 구절을 함께 제시하며 불교의 근본 뜻을 일깨운다. 독자는 해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마주 앉아 격의 없이 문답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느낌을 받는다.

스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중적 명상'의 한계도 분명히 짚는다. 단순한 심리 훈련이나 휴식에 그치는 명상에 머물지 말고, 탐욕·증오·어리석음을 뿌리 뽑기 위한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과 통찰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마음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기 쉽지만, 마음챙김은 그런 경향을 알아차리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실제적인 방법임을 일깨운다. 불교는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고 삶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독자들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을 필요 없이 20개의 주제 가운데 지금 부딪히는 문제를 골라 책장을 펼치면 된다. 스님 특유의 명료하고 쉬운 문장은 수행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가르침의 깊이는 놓치지 않는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은 1927년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12살에 사미계, 20살에 비구계를 받았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쳤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행을 지도했다. 현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바바나소사이어티 숲속 수도원'에 머물고 있다.

마가 스님, 부산서 신간 북토크 개최



마가 스님이 신간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를 1월 22일 오후 3시 부산 영광도서 문화홀 1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북토크는 신간에 담긴 주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삶과 감정의 흐름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마가 스님은 집필 과정에서의 고민과 책에 담은 핵심 화두를 직접 풀어내며, 독자들과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은 상실과 공허, 관계의 소원함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태도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북토크에서는 책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삶 속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식과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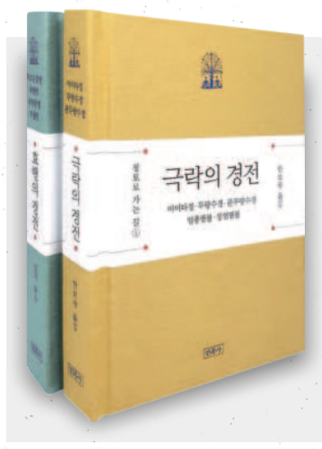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스테디 셀러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기복 대신 깊은 수행 나아가게 이끌어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② 체계적인 수행법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반야 참회의 두 번째 특징은 체계적인 수행법이라는 것이다.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그 방법이 얼마나 체계가 갖춰졌느냐 하는 것이다. 수행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서 수행에 진전이 없거나, 반대로 처음에는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시간 낭비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야 참회는 매우 체계적이다. 반야 참회의 전체적인 체계는 초급·중급·상급으로 돼 있으며, 각각에는 그 수준에 맞는 참회 대상이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서 포함돼 있다. 참회 대상의 배열은 불교의 번뇌론과 수행론에 따라 신업, 구업, 의업의 순서로, 그리고 의업 중에서도 탐욕과 성냄 등 알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체계로 돼 있다. 그래서 반야 참회를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점점 참회가 깊어지면서 수행의 진전이 이루어진다.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차례로 정화해 들어가는 반야 참회의 이런 체계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는 모든 수행법에 공통적이다. 따라서 반야 참회를 거치게 되면 이후 다른 어떤 수행법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된다.

화두 참선의 예를 든다면, 참선이란 화두를 들면서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여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 그런데 초보자가 화두에 익숙해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반야 참회를 하게 되면 신구의 삼업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강해져서 화두를 드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최근에 많이 알려진 위빠사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빠사나는 사성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성제에서 수행은 팔정도가 핵심이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정견)를 배워서 기초를 세운 다음, 생각과 언행, 그리고 평상시의 활동을 정화하는 순서(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를 거쳐 올바른 관찰과 선정으로 진행(정념, 정정)되는 수행법이다. 이 역시 본격적인 수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반야 참회는 위빠사나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주력이나 독경에도 마찬가지다.

반야 참회의 세 번째 특징은 수행과 현실의 갈등이 없다는 것이다.

출가자들도 해당되지만, 특히 재가불자들이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수행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다. 예를 들면 다툼의 문제가 그렇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충돌해 다퉈야 할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다. '불교에서는 싸우지도 말라고 하고 화를 내지도 말라고 한다. 결국 손해를 보라는 말이 된다. 손해도 정도 문제이지, 항상 이런 식이면 불교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자기방어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앞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반야 참회의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수행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또 하나의 갈등은 소원성취의 욕구다. 수행을 하는 재가불자들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금전 문제나 기타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수행을 하다가도 기복신앙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반야 참회에서는 불자들의 이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향(廻向)법을 채택하고 있다. 회향이란 진실한 참회를 통해 만들어진 공덕을 현실 문제 해결이나 소원성취의 힘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참회나 수행을 열심히 할수록 현실 문제 해결이나 소원성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복신앙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욱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된다.

> **초급 · 중급 · 상급으로 체계 갖춰**
>
> **신·구·의 순, 단계적 수준 접근**
>
> **따라하면 참회 깊어져 수행 진전**
>
> **이후 여타 수행법도 쉽게 소화돼**
>
> **문제 해결·소원성취 가능성 커져**
>
> **단기간 고통 소멸, 해오 도달케 해**

반야 참회의 네 번째 특징은 수행의 당면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이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당면 목표가 없는 채로 막연하게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수행의 최종 단계인 구경각이나 깨침, 열반 등을 지향하고 있다. 전자는 수행의 진전이 더딜 우려가 많고, 후자는 목표는 원대하지만 중간에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수행을 생각하는 불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를 '빨리' 탈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야 참회에서는 낮은 단계를 탈피하면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두 단계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입문 단계의 당면 목표로서, 현재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단계다. 부처님 앞에서 참회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참회를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악업의 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가정불화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미움이나 화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참회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통이 사라진다. 또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편안하게 잠들게 된다. 이런 체험을 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빠른 사람은 한두 달 만에도 가능하며, 길어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는 해오(解悟)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야 참회에서 특히 강조하는 당면 목표이다. 해오란 '자기 생명의 근본이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이것을 보통 '공적영지(空寂靈知)'와 '불생불멸(不生不滅)' 등으로 표현한다. 공적영지란 "텅 비고 고요하면서 동시에 신령하게 안다"라는 말이며, 불생불멸이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여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비록 자신이 번뇌 덩어리의 중생으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근본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물론 해오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깨달음은 아니다. 그래서 해오를 해도 번뇌 망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러나 해오를 하게 되면 자기의 근본을 어느 정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생사를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가 크게 달라진다.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등을 고민하는 정신적 방황이 대부분 그치게 된다.

그래서 해오를 한 다음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의 삶에서 힘이 넘치기 시작하여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고통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된다. 대승불교의 경우 전체 수행 과정에서 해오는 흔들림 없는 신심이 처음 정착되는 단계라고 해서 '초주위(初住位)'라고 한다. 이는 수행에 있어서 굳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발판이자, 입문자에서 진짜 수행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수행의 입문자들이나 재가불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해오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앞에서 말한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는 단계는 당연히 거치게 된다. 필자가 신도들을 지도해 본 경험에 의하면, 반야 참회와 염불을 매일 지속하면 대략 5~6년 정도면 해오에 도달할 수 있다. 더 높은 단계의 수행은, 해오 이후에 각자의 인연에 따라 선지식을 찾아서 수행하면 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

사유의 벽을 넘어 본래 마음자리에 이르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태어남을 '낳음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이 시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낡고 무의미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 소녀의 마음에 새겨진 이 질문은 그를 50여 년 학문과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

동서양 철학의 소통을 모색해 온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그 물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특별한 사건이 만들어 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저절로 떠올랐고, 누구나 그런 질문을 갖고 사는 줄 알았다"고 회고했다.

굳이 계기를 찾는다면 어릴 때 읽은 동화책과 소설책의 문장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엄마의 통곡, 집에서 키우던 개나 병아리와의 이별 등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사춘기 내내 그를 붙잡았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은 그를 철학의 길로 이끌었다.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하며 살지부터 정할 수는 없었다"며 "왜 사는지를 고민해도 되는" 철학과를 택했다. 사학계 원로인 부친 한우근 교수도 "철학이 학문 중의 학문"이라며 딸의 선택을 지지했다.

대학에서 은정희 교수의 불교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이 궁금해하던 물음과 인생의 의미, 우주 존재의 문제에 대한 답이 불교에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무아·공·아뢰야식·일심 등 불교의 핵심 개념을 알게 됐고, 이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됐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서양 근대사상을 이해해야 현대사회와 인간 이해의 기반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서양철학을 먼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석사 논문으로 '데카르트의 신과 후설 현상학의 초월적 자아의 비교'를 집필했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칸트 연구에 매진했다.

5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동양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실천에 옮겼다. 계명대 교수로 재직하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 등록해 학생 신분으로 수업을 들었다. 이후 결혼과 육아의 시간 속에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고 박사학위를 마쳤다. 그에게 학문은 직업이 아니라 '사유를 통해 삶을 돌파하는 방식'이었다.

"불교를 처음 접한 순간부터 저는 그 철학적 깊이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서양에서는 근세에 철학과 신학이 분리되면서 철학은 개념적 사유 차원에 머무르고 종교성·영성을 배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불교 특히 유식불교는 철학적 사유에 종교적 깊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는 이원론적·분별적·개념적 사유의 한계를 이미 간파하고, 그러한 분별을 넘어 중생의 본래 마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한자경 교수는 최근 자신의 간화선 수행기를 담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를 재출간했다.

불교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는 교(敎)와 선(禪), 이론과 실천이 둘이 아님을 체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다. 일상에서 〈대념처경〉의 사념처 수행을 실천했고, 이화여대 동료 교수의 권유로 서울 안국선원에서 간화선을 만났다. 당시에는 여러 여건상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했지만, 본격적인 집중수행은 부산 안국선원에서 이뤄졌다. 2009년 12월 22일, 태어난 지 50년이 되던 날이다.

7박8일간의 집중수행은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의 법문으로 시작됐다. "손가락을 튕겨 보십시오. 무엇이 손가락을 튕기게 하는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 하긴 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따라다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답답하고 또 답답했던 물음이 아닌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온몸으로 답답해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우직하게 화두를 붙들었다. 함께 수행하던 이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체험을 하고 나아가는데, 화두로 인한 의심(疑心)과 의정(疑情), 의단(疑團) 그리고 화두 타파는 멀게만 보였다. 선방에 앉아 울고 또 울었다. 공양도 거른 채 명상에 몰두하던 어느 날 "밑동이 쑥 빠져 버리는 느낌"을 받았고, 밤낮없이 정진을 이어가 마침내 수불 스님에게 '해낸 것'을 점검받았다. 이후 해남 미황사에서 수불 스님의 지도로 또 한 번 7박8일 집중수행을 했다.

"집중수행을 통해 불교가 말하는 견성(見性), 즉 본래 마음을 본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유의 한계와 벽에 부딪혀 답답해하다가 그것을 돌파하는 느낌을 얻은 것이지요. 그 과정을 세세히 기록한 책이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입니다."



2024년 6월 29일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에서 '일심이란 무엇인가'를 발표하는 한자경 교수.



2025년 11월 '밝은사람들연구소'의 총서 20권 발간을 기념해 수불 스님(가운데)과 미산 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자경 교수(맨 오른쪽) 등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자경 교수는 학술연찬회 좌장을 맡고 있다.

존재에 대한 물음, 철학의 길을 열다
독일서 '칸트철학' 연구 후 불교 공부
'수불선'이 열어 준 '선교 불이'의 길
"AI시대 '마음이란 무엇인가' 물어야"

최근 출간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김영사)는 2013년 출간한 〈화두〉의 개정증보판이다. 절판 이후 주변에서 책의 재출간 여부와 수행 이후의 변화를 묻기도 해 재출간을 결심하게 됐다. 무엇보다 수불 스님의 간화선 지도 방식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는 수불 스님의 간화선을 '수불선'이라고 명명하며 집중수행 과정과 특징을 정리해 책에 담았다.

그런데 남들은 평생에 걸쳐 수행해도 이르기 어렵다는 '화두 타파'의 경지를 어떻게 7박8일 만에 이룬다는 것일까?

"교(敎)가 지도로 산을 보는 것이라면 선(禪)은 직접 산을 보는 것입니다. 또 올라갈 산을 직접 보는 것이 자신의 성품과 불성을 확인하는 견성(見性)·돈오(頓悟)이며, 실제로 산을 오르는 것이 점진적 수행인 점수(漸修)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불선의 7박8일 간화선은 돈오를 위한 수행법으로, 이후 점진적 수행 과정과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위한 내적 추진력과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한 교수는 지금의 자신을 "산을 한 번 본 정도,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자리를 확인한 정도"라고 표현했다. 이어 "간화선 수행의 힘은 자기 마음의 크기와 깊이를 확인하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지혜와 자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물음은 AI(인공지능)시대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도 마음이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철학은 과학의 시녀'이고 '과학은 재력과 권력의 시녀'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주는 답, 과학자나 AI가 제시하는 답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유의 틀을 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그 물음에 분명한 답을 줄 것입니다."

집중수행 후 '불교를 잘 알리는 것'을 소임으로 삼게 됐다는 한 교수는 앞으로 〈원각경 강해〉, 〈유식이십론 강해〉, 〈성유식론 강해 2·3·4〉 등을 집필하는 한편, 불교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를 동·서양 철학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의 삶은 내가 불교적 가치를 제대로 내면화했는지, 불교적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장입니다. 은퇴 후 일상이 단순하고 편안해지면서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않는 삶, 평화로운 노년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길 위에 서 있었던 그가 도달한 곳은 '본래의 마음자리'였다. AI가 모든 질문에 답하는 시대, 한자경 교수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은 무엇이냐고.

한자경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칸트철학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 들어가 유식불교로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로 자리를 옮겨 강의하며 연구와 저술 활동을 했다. 지난해 2월 퇴임해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청송학술상, 원효학술상, 반야학술상, 서우철학상, 이화학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심층마음의 연구〉(반야학술상), 〈대승기신론 강해〉(불교출판문화상대상),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원효학술상), 〈불교의 무아론〉(청송학술상), 〈칸트와 초월철학〉(서우철학상)을 비롯해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능엄경 강해〉, 〈성유식론 강해〉, 〈불교철학의 전개〉, 〈한국철학의 맥〉, 〈명상의 철학적 기초〉, 〈칸트 철학에의 초대〉, 〈헤겔 정신현상학의 이해〉, 〈실체의 연구〉 등이 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백문이 불여일견 !

스님 자신이 기존 법당의 시설 마이크와 본사의 초간단 (디지털) 견본의 마이크를 양손에 잡고 번갈아가며 염불소리 테스트를 해 볼시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의 놀라운 소리 격차를 체험 후 귀 법당 기존시설의 1/2가격으로 시설상담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로 단 한 곳도 고장 전화가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390만원 이동식 방생용도 전문판매





현 판매 시설자 박 공 희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63호 | 14 | 전면광고

보시는 큰 부의 문이 되며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문수사리정률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 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 수익
- 시세 : 70억 매가 : 4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100평
- 법당 : 70평, 요사: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11억

주차 가, 매수 완료 시 수익1000~1300만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 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단양군 매포읍 평동10나길9-6
- 단독주택 / 약30평
- 방3,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
- 임대(매매전까지 평생거주)
- 보증금 : 3,000,000원
- 월 세 : 300,000원
- 가 액 : 75,000,000원

010-8567-3667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2억 7000만원(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80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1동 / 종무소 · 객방 13평-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 · 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 · 천도재 · 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 3분(평지)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스님, 법사님, 보살님, 무속인 모두 환영
- 보증금 2천/월 40만(시설비 없음)
- 몸만 오시면 법회 및 주차 가능함

010-3574-3303
010-7121-3030

사 찰 안 내

부산 경남 울산·경북 경주 지역 사찰전문부동산

- 이 지역 사찰 매도하실 분이나 사찰 구하시는 스님 연락주세요.
- **사찰직방**(사찰, 포교당 매매 전문)

NAVER 블로그 사찰직방 검색

010-6838-3140

토 지 안 내

- 위치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위빠사나 법사 구합니다

010-4474-8418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부전 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公益文學才團 無料獎學(모바일) 大學院(주, 핸드폰)

① 사주학 역학 등 20여 과목 어디서나 무료이수 3월까지 접수
② 사암 승려 등록 (유능 명망 교수초빙)
100여권 저서 ← 무료 장학 모바일 대학원
(…) 사무총장 초빙 요양사 자격증 소지 환영

公益法人 大韓佛教 國際 民佛宗 宗立大

Daum NAVER 역학대통령

(02)907-5858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佛子 CEO Interview

한봉희 우주물산 대표

“사람의 마음에 ‘향기’를 남깁니다”



2025년 12월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글로벌파워브랜드 시상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과 상을 수상한 한봉희 대표. 2023년과 2024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표창을 받은바 있다.





2026년 1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여수 향일암과 흥국사 남해 보리암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업의 성장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진정한 나눔은 사람의 가슴에 ‘향기’로 남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남해의 바다는 붉은 해를 품어내며 장엄한 빛을 뿜어냈다. 지난 1월 3일, 남해 보리암과 여수 향일암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순례길. 86명의 불자가 묵묵히 합장하며 오르는 그 행렬의 맨 앞에, 혹은 가장 뒤에서 도반들을 살피는 이가 있었다. 바로 봉제업체 ‘우주물산’을 이끄는 한봉희 대표다.

그에게 기업 경영과 불교적 수행은 두 개의 다른 트랙이 아니다. “비즈니스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만, 그 이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장사가 되기도 하고 보살행이 되기도 합니다.” 한 대표의 첫마디에는 15년 넘게 이어온 뚝심 있는 신념이 묻어났다.

단순한 기부자가 아닌, ‘함께 걷고 땀 흘리는 수행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한봉희 대표. 새해 벽두, 여수 흥국사의 고즈넉한 처마 아래서 그를 만나 ‘불자 CEO’로서 걷는 자비와 나눔의 길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15년의 약속, 길 위에서 새해를 열다

한봉희 대표의 새해는 언제나 길 위에서 시작된다. 올해도 어김없었다. 1월 3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한마음 전국사찰 성지순례단’의 일정은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그리고 흥국사로 이어졌다.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탄 86명의 순례단은 한 대표에게 가족이자 도반이다.

“새해 첫 순례는 저에게 있어 ‘영점 조절’과도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을 하며 알게 모르게 쌓였던 욕심이나 집착, 번뇌들을 부처님 전에 내려놓는 시간이지요. 보리암에서 남해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을 보는 경영을 하자’고요.”

순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움츠러들었던 신심이 다시 기지개를 켜듯, 참가자들은 가파른 향일암 계단을 오르며 거친 숨소리 대신 “관세음보살” 정근을 토해냈다. 한 대표는 “힘들게 올라가서 마주하는 법당은 그 자체로 환희심”이라며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절을 하는 이 공동체의 온기가 바로 불교가 말하는 ‘도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동행’이 만든 기적, 한마음 순례단

‘한마음 전국사찰 성지순례단’의 역사는 201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인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버스 시동이 걸렸다. 놀라운 점은 별다른 홍보나 강제성 없이도 매회 80~90명의 인원이 꽉꽉 들어찬다는 사실이다.

한 대표는 순례 자체가 가장 강력한 포교라고 믿는다. 백 마디 말로 불교를 설명하는 것보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함께 듣는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등산 삼아 따라왔다가, 이제는 누구보다 신심 깊은 불자가 된 분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국경과 종교를 넘는 ‘무주상보시’

한봉희 대표의 나눔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더 춥고 낮은 곳, 티베트로 향해 있다. 약 5년 전부터 그는 매년 세 차례씩 티베트 지역에 의류와 양말 등을 보낸다. 그 양이 매번 1톤 트럭 분량에 달한다.

“제가 섬유, 봉제업(우주물산)을 하잖아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티베트의 고산지대는 춥습니다. 그곳의 스

2010년부터 순례단 구성
전국 순례하며 불심 다져

‘우주물산’ 통한 사회공헌
장애인 고용, 나눔 실천해
티베트 의류 지원 등 회향

님들과 아이들이 제가 만든 양말을 신고 추위를 견딘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장에서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마치 목탁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그의 자비에는 경계가 없다. 불교 국가인 티베트뿐만 아니라, 국내 타 종교 단체에도 세 차례나 물품 나눔을 진행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쌀 나눔도 5~6차례 이어왔다. 독실한 불자이면서 타 종교에 기부하는 것이 의아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배고픔과 추위에 종교가 어디 있고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타 종교 시설이라도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돕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우주’

한 대표가 2008년 설립한 ‘우주물산’은 단순한 이윤 추구 집단이 아니다. 그는 8년 전부터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산성 저하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대표의 계산법은 달랐다.

“물론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한 인간에게 ‘존엄’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업가로서 느끼는 성취감은 매출 그래프가 올라갈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제가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보살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장애인 직원들이 꼼꼼하게 물건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린다고 했다. 같은 물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듯, 조금 느린 손길도 기다려주고 격려하면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손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익을 ‘회향’하는 선순환의 경영

“사업을 해서 번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땀과 사회의 도움,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그렇기에 그 결실을 다시 불법(佛法)을 전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순환’입니다. 순례단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다면 벌써 그만두었겠지요. 오히려 돈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는 기업의 곳간은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역설을 믿는다. 나눔을 실천할수록 회사는 더 단단해졌고, 직원들의 결속력도 강해졌다. 그에게 경영은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공급하는 통로다.

멈추지 않는 수행, “중요한 것은 지속”

인터뷰 말미, 그녀는 거창한 청사진 대신 ‘지속’이라는 키워드를 꺼냈다.

“특별히 더 큰일을 벌이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도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재봉틀이 돌아가는 한, 티베트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양말을 보낼 겁니다.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꾸준함’이듯, 나눔과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묵묵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그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새해의 붉은 해를 바라보며 다짐했던 그의 원력(願力)은 소박하지만 묵직했다. ‘기업의 성장은 숫자로 남지만, 나눔은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는 그의 말처럼, 한봉희 대표는 오늘도 현장을 오가며 자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자비로 교복을 만드는 우주물산

한땀 정성에 자비를 담아,
아이들의 꿈을 만듭니다.

우주물산
교복 봉제 전문기업

우주물산은 (주)형지엘리트 교복과 최고급 교복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주물산은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여 (주)형지엘리트 교복이 최고의 교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1 3층 우주물산 문의 : 010-8651-0876

데이터로 환원 불가한 삶의 실상 찾아야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② AI 생성 이미지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AI가 만들어 내는 감동?

'상상을 현실로'라는 진부한 문구가 이토록 소름 돋는 현실이 된 적이 있었을까. 최근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성취는 충격적이다. 복잡한 코딩도, 오랜 훈련도 필요 없다. 그저 채팅창에 명령어 몇 줄을 적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니터 속에서 마법이 시작된다.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 특화 AI '미드저니(Midjourney)', 영상 제작을 자동화하는 '런웨이(Runway)', 음악 창작을 돕는 '수노(Suno)' 같은 도구들이 등장하며 창작의 경계를 급격히 허물고 있다. 몇 초 만에 영화 예고편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며 작가의 구상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구현하는 시대다. 이제 창작의 시작은 기술이 아니라 상상력 그 자체가 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예술과 창작의 영역만큼은 인간의 고유한 전유물로 남는 것이라 믿었다. 복잡한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는 AI에 넘겨주더라도, 시를 쓰며 고뇌하고 캔버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는 것은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늘날 AI는 미술대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단 몇 초 만에 그럴듯한 소설의 초고를 완성하며, 인간 작곡가가 몇 달을 고민해야 할 화음을 순식간에 작곡해 낸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AI의 등장 앞에서, 수많은 창작자는 경이로움 이면에 자리한 서늘한 공포를 마주하고 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완벽하게 창작한다면, 과연 인간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일자리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실존적 허무함, 불교에서 말하는 근원적 고통인 '고(Duḥkha, 苦)'의 현대적 발현이다. 인류가 쌓아 올린 자부심의 성채가 데이터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AI와 기능적 완성도를 겨루는 경쟁은 이미 결과가 예견된 구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내는가가 아니라, 그 창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울림과 여운을 남기는가이다.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압도적인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결코 데이터로 환원될 수 없는 아물지 않는 상처와도 같은 삶의 흔적들이다.

스투디움과 푼크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그의 저서 〈카메라 루시다: 사진에 관한 노트〉(1986)에서 사진을 보는 방식을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그의 미학적 사유를 오늘날의 AI 이미지 위에 겹쳐 보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렌즈가 되어 준다.

첫 번째는 '스투디움(Studium)'이다. 이는 우리가 교양이나 학습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문화적 코드를 바탕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일반적인 흥미를 말한다. 우리가 잘 짜인 구도, 세련된 색감, 풍부한 역사적 정보를 담은 사진을 보며 "구도가 안정적이군", "색감의 조화가 훌륭하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영역이다. 스투디움은 학습할 수 있는 코드의 세계이며, 보편적인 동의의 영역이다.

데이터는 AI가 처리하는 정보일 뿐
AI 창작물서 푼크툼 느끼기 어려워
푼크툼은 '일체개고' 진리 맞닿아
타인 상처 인식·공명이 '자비'
무결점 세계서 아픔 공명은 우리 몫

두 번째 개념이 중요하다. 바로 '푼크툼(Punctum)'이다. 라틴어로 '찌름', '상처', '방점'을 뜻하는 이 단어는, 평면적인 스투디움의 영역을 깨고 돌발적으로 튀어나와 보는 이의 심장을 찌르는 사건을 의미한다. 롤랑 바르트는 이에 대해 "사진의 푼크툼은 나를 찌르는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사진작가가 의도한 것도 아니요, 비평가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예컨대, 완벽하게 연출된 가족사진 속에서 우연히 찍힌 낡은 신발 한 짝이 나에게만 특별한 과거의 상처를 환기하며 가슴을 저미게 하는 것이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촬영한 사진 속 안중근 의사의 눈빛이 설명할 수 없는 전율로 가슴을 찌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것이 바로 푼크툼이다. 푼크툼은 설명할 수 없는 '찔림'이자, 나의 육체와 기억에서 반응하는 고유한 아픔이다.

이 두 가지 렌즈로 AI를 바라본다면, AI는 명백히 스투디움의 제왕이다. 인류가 축적한 수십억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가장 평균적이고 가장 세련되며 통계적으로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순식간에 생성한다. AI가 그린 그림은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구도는 완벽하며 스타일은 화려하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감탄하고 흥미를 느낀다. 완벽한 스투디움의 세계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촬영한 사진 속 안중근 의사의 눈빛이 설명할 수 없는 전율로 가슴을 찌르는 것이 바로 푼크툼이다. 푼크툼은 설명할 수 없는 '찔림'이자, 나의 육체와 기억에서 반응하는 고유한 아픔이다.
사진 출처=MBC 특집 다큐멘터리 '안중근, 다시 평화를 외치다'(2024년 11월 28일 방영)에서 최초 공개된 일본 소장 안중근 의사 유리건판(순국 5분 전 촬영 추정)을 화면 캡처

그러나 AI의 창작물 앞에서는 좀처럼 가슴이 베이는 듯한 아픔, 즉 푼크툼을 느끼기 어렵다. 왜일까? AI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푼크툼은 필멸의 운명을 지닌 존재가 겪는 삶의 우연성과 취약함에서 비롯된다. 상처 입어 본 적 없는 존재,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집합체는 결코 타인의 심장을 찌르는 고유한 상처의 무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AI의 결과물은 너무나 매끈해서 미끄러질 뿐, 우리의 영혼에 생채기를 내며 박히지 못한다.

고통 있기에 가능한 공감, 데이터 너머의 자비

롤랑 바르트가 말한 이 '푼크툼'은 불교가 꿰뚫어 본 삶의 실상, 즉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일체개고(一切皆苦)'의 진리와 깊이 맞닿아 있다. 불교는 인간 존재를 생로병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부서지고 변화하는 취약한 존재로 파악한다.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며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다. 이 유한성과 필멸성이야말로 우리 삶에 근원적인 불안과 고통을 드리운다.

AI와 인간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AI는 고통이 소거된 존재다. AI에게 데이터는 처리해야 할 정보일 뿐,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아니다. AI는 이별의 아픔을 다룬 수만 편의 시를 분석하여 그럴듯한 비유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 시를 쓰면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다.

반면 인간의 창조성은 바로 이 결핍과 고통의 토양 위에서 피어난다. 붓다는 고통을 외면하거나 초월적인 세계로 도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응시하면서, 나와 타인이 모두 똑같이 아파하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데서 깨달음을 구했다.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과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 내가 타인의 상처를 알아보고 공명하는 것, 불교는 이를 '자비(慈悲)'라고 부른다.

예술과 창작은 압도적인 기술로 타인을 제압하는 스투디움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색면 추상화처럼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접속하는 숭고한 행위다.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활동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과 공감하는 마음에 있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 AI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문장 너머의 떨림을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AI시대, 인간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스투디움의 영역에서 AI와 경쟁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을뿐더러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밀한 데이터의 세계가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며 떨리는 공감의 자리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열반의 안락 대신 다시 고통받는 중생 속으로 걸어 들어온 까닭을 되새겨야 한다. 붓다는 무결점의 세계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기꺼이 아파하는 존재들의 곁을 택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명하고, 서로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AI 시대에 붓다가 일깨우는, 진정한 인간다움의 증명이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불교, 민간 신앙 자비로 끌어안다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② 절집에 자리 잡은 토속신, 산신(山神)

우리 불교의 휴머니즘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

사찰 곳곳을 살펴보면 가장 구석진 곳, 혹은 가장 높은 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전각 하나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산의 주인인 산신(山神)을 모신 산신각(山神閣) 혹은 산령각(山靈閣)이다. 다른 법당에 비해 규모가 소박하긴 하지만 웬만한 부처님만큼의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원래 산신이 불교문화에 등장한 신이었던가? 우리 고유의 토속신앙이 아니었던가? 산신령은 언제부터 불교에 스며들었던 것일까?

산악신앙에서 시작된 산신신앙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알려 주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단군신화(檀君神話)'에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다가 1908세에 산신이 됐다고 하며, 신라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가 경주 선도산(仙桃山) 성모산신(聖母山神)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와 인도에는 올림푸스(Olympus)와 만다라산(Mandara)이, 불교에는 수미산(須彌山)이 등장하며 도교에도 신선이 노니는 오악(五岳)과 삼신산(三神山) 설화가 확인된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과 관련된 신앙, 즉 산악신앙(山岳信仰)은 항상 존재했다.

높게 치솟은 산 정상은 하늘과 맞닿아 있기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고리이자 사다리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신성한 산은 인간의 소유가 아닌 산을 관리하는 위대한 주인이 있었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문화 속 산신 또한 이러한 맥락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오늘날까지 지방 산천 곳곳에 전해지는 전설과 민담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존재하는 것이다.

더피의 원조, 산신도의 호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신은 동화에서 보았듯이 긴 수염과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노인 형상이다. 불교의 산신 역시 노인 형상을 한 것은 맞긴 하나 더욱 화려한 모습을 지닌다. 또한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산신은 혼자 다니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자신을 모시는 동자(童子), 혹은 호랑이를 옆에 두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례는 산신과 호랑이의 조합이다. 불화 속 산신은 호랑이를 옆에 끼고 있거나 올라타고 있다. 그런 호랑이는 용맹한 맹수의 모습은 잊은 채 뻐드렁니를 내밀며 실실 웃고 있거나 바짝 엎드려 복종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은가? 그렇다. 얼마 전 전세계를 휩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호랑이 더피(Derpy)와 판박이의 모습이다. 더피가 민화(民畵) 소재로 표현된 까치와 호랑이를 모티프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익살스러운 호랑이 이미지의 뿌리는 불교에서 더욱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호랑이는 '산군(山君)'으로 불릴 만큼 신성시된 동물이다. 이에 혹자들은 호랑이가 산신의 뜻을 전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심부름꾼이라고들 하는데, 그것보다는 산군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조금 더 의미를 두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랑이는 산군으로 불렸다. 여기서 산군은 산신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불화 속 산신과 호랑이를 살펴보자. 표정과 동세, 세부 모습 등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바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바로 산신은 곧 호랑이고 호랑이 역시 곧 산신이 되는 분신, 혹은 화신(化身) 같은 존재 말이다. 이에 불화 속 산신도에 표현된 산신령과 호랑이는 산신의 위대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잘 표현된 장치라고 볼 수 있겠다.



공주 대비암 산신도(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의 주산신(조선 1770년, 송광사성보박물관).



하동 쌍계사 국사암 신중도의 산신(조선 1781년, 쌍계사성보박물관).

> **"산악신앙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불교미술 속 산신, 동자 혹은 호랑이와 함께 임진왜란·병자호란 직후 산신 사찰에 자리 조선 후기 민간 토속신 불교에 신중으로 합류"**

민초를 보듬어 준 불교의 산신신앙

그렇다면 토속신이었던 산신은 언제부터 불교문화로 편입됐을까? 이와 관련해 〈화엄경(華嚴經)〉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를 이루자 수많은 보살과 신중이 이 모습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산신은 39위(位) 화엄성중(華嚴聖衆)에 포함돼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主)는 군주(君主)로 부처님과 뭇 왕인데 땅과 물, 숲, 산의 신은 기세간(器世間)의 주도자요, 천왕(天王), 용왕(龍王), 야차왕(夜叉王) 등은 중생세간의 주도자이다.

이와 함께 〈지장경(地藏經)〉 '칭불명호품(稱佛名號品)'에는 산신을 산왕불(山王佛)이라고 칭하며 산신이 불법에 귀의했다고 기록돼 있으며 1872년 간행된 의식집인 〈작법귀감(作法龜鑑)〉에는 산신을 '산왕대신(山王大神)' 혹은 '산왕대성(山王大聖)'으로 부르고 있다. 〈작법귀감〉에서는 "산왕대성께서는 가장 신통하고 가장 영험하시며 위엄 있고 용맹하십니다. 용맹을 떨치는 곳에는 요망한 귀신을 꺾고 마군을 항복시키며, 가장 신령할 때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며 무려 16명의 산신에게 복을 빌고 있다. 게다가 〈작법귀감〉에는 〈산왕경(山王經)〉이라는 경전도 언급돼 있으니, 산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불교경전이 편찬되기까지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전 내용은 화엄세계를 표현한 변상도와 불교회화에 적용돼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산신(主山神)으로 기록된 산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전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처음 언급한 산신각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신각 기록 중 가장 빠른 사례는 1696년에 건립된 군위 압곡사(鴨谷寺) 산령각과 1761년 처음 건립됐다는 양산 통도사(通度寺) 산신각이다. 이와 함께 18세기에 활동한 인악 의첨(仁岳 義沾) 스님의 〈인악집(仁岳集)〉에도 해남 은적암(隱寂庵)의 '산령각기(山靈閣記)' 내용이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통해 민간의 산신은 적어도 17세기에서 18세기 무렵에는 이미 불교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산왕경〉 역시 산신각에 비치돼 사용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신이 절집에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확실하진 않지만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즉 양란(兩亂) 직후 변화된 불교계의 양상으로 보고 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불교계는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오로지 유교만을 국가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숭유억불(崇儒抑佛) 때문이었다. 물론 왕실의 후원으로 유지되는 몇몇 사찰들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와중에 양란이 터졌고 당시 스님들은 승군(僧軍)을 조직해 나라를 위해 싸웠다. 이후 왕실 역시 이와 같은 불교계의 공을 인정하여 전소된 사찰이 다시 지어질 수 있게끔 후원해 주었다.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우리가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산신과 토지신(土地神), 조왕신(竈王神) 등 토속신들이 바로 이때부터 불교에 넘어온 것이다.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황폐화된 국토에 역병까지 돌았다. 이에 백성들은 주변 곳곳에 있던 산신님과 조왕님, 토지신님께 기도하며 고통을 덜고자 했지만, 이미 그 사당 역시 파괴돼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교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불교가 가진 가장 좋은 능력, 포용과 자비로 해결했다. 조선후기 불교계는 민간 곳곳의 토속신들을 불교로 편입시키는 파격적인 인사 채용을 시도한다. 대대적인 구조 요청에 대한 수렴이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최고의 반응일 수밖에. 이에 수많은 토속신은 신중(神衆)으로 합류됐고 의식문화 발전과 함께 104위에서 124위에 이르는 수많은 신중을 표현한 신중도(神衆圖)로 표현되는 등 미술 문화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항상 있었기에 우리는 왜 산신님이 사찰에 있게 됐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 없었다. 산신도, 조왕신도 절집에 머무르게 된 건 불교라는 자유롭고도 푸근한 울타리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개방적 성격을 가진 종교는 예로부터 불교가 으뜸이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없다. 이에 사찰 산신각에 모셔진 산신 역시 우리 불교의 휴머니즘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용덕 작가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불보살님 보살핌 우리 삶에 늘 함께해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㉕ '미씽 : 그들이 있었다'
시즌1(2020) · 시즌2(2022)

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삶과 죽음의 문제는 부처님의 출가 동기일 만큼 불교의 역사를 관통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많은 스님들이 생사 해탈을 위해 출가한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사후관을 간략히 정리하면, 사람이 죽으면 중음신(中陰身)이 되어 49일을 지내는 동안, 살아 있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 시왕(十王)의 심판을 받는데 시왕의 판결에 따라 육도윤회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때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죽은 이를 위한 재를 지내는데 이것이 불교의 장례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49재다. 이번 생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지대같이 설정된 49일의 심판 기간을 보고 있으면 죽은 이와 산 사람 사이의 인연의 끈이 이어지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후세계에 대한 표현 중에 '연옥(煉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옥에 갈 만큼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닌 사람들이 죄를 '정화(淨化)'하는 곳이라고 한다. 불교의 49일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지대라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

드라마 '미씽 : 그들이 있었다'는 바로 이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지대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곳은 죽은 이들이 모여 사는 두온마을이라는 가상의 마을이다. 그런데 이 마을에 모여 있는 이들은 단순한 망자들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들이다. 한마디로 실종자들의 영혼이 모인 마을인 셈이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독특한 점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 해에 5만 건에 가까운 실종신고가 있는데 99% 이상은 1년 안에 발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장기 실종자가 7천 명 정도이며 그 중에 천 명 정도는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측된다는 통계가 있다. 드라마가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실종된 채로 목숨을 잃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아 육신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은 이의 원통함, 그리고 육신을 찾지 못해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남겨진 가족의 피맺힌 한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열혈 청년 김욱(배우 고수)은 최여나(배우 서은수)의 납치 장면을 목격하고 납치범들에게 쫓기다 장판석(배우 허준호)의 도움을 받는다. 우연히 들어서게 된 두온마을이 사실은 죽은 이들의 영혼이 살고 있는 곳임을 알게 된 김욱은 판석과 함께 그들의 시신을 찾아 실종된 이들의 한을 풀어 주는 일을 한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세계인 두온마을. 김욱과 장판석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두온마을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망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두온마을이 죽은 이들의 마을이라고 해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나 서양의 뱀파이어 같은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두온마을의 마을회관 역할을 하는 '카페 하와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문을 통해 마을에 오는데, 죽을 때 입고 있는 옷과 소지품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또한 마을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거주할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도 망자들의 기억을 토대로 생전의 공간 그대로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살아 있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삶을 이어 가다가 시신이 발견되면 망자도, 그들의 공간도 순식간에 마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지대 소재 드라마
시즌2, 실종 아동 초점 보살핌 의미 강조
마을 주민 돕는 등장인물 보살 다름없어
현실 힘들어도 도움 주는 이들 주변 존재
조력자가 관음 · 지장보살임을 기억해야

이처럼 평범한 마을과 다를 바 없는 두온마을은 사방에 꽃이 넘쳐나는 곳이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꽤 많은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곳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한 많은 사연이 가득한 슬픈 곳이 아니라 마치 평화롭고 행복한 정토세계처럼 느껴질 정도다.

생각만으로도 의식주가 저절로 해결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부처님 법대로 정진할 수 있는 곳, 불국정토. 정토에 중생들을 보살피는 불보살님이 계시듯 두온마을에는 100년 넘게 두온마을을 지키고 있는 토마스 차(배우 송건희)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카페 하와이를 운영하면서 마을에 처음 도착한 사람에게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며 실질적인 두온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토마스를 일제강점기 독립군과 관계된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조상들이 후손들을 보살피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미씽 : 그들이 있었다(시즌1) 포스터.
사진 출처=OCN 공식 홈페이지



미씽 : 그들이 있었다(시즌2) 포스터.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드라마 속 두온마을이 정토를 연상시키게 평화로울 수 있는 배경에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강선장 같은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은 '미씽 : 그들이 있었다(시즌2)' 11화 비하인드 한 장면.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2년 후에 제작된 시즌2에서는 이런 점이 좀 더 두드러진다. 30년 전에 실종된 어머니를 두온마을에서 만나 어머니를 둘러싼 살인사건을 해결한 김욱과, 1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의 시신을 마침내 찾게 된 장판석이 두온마을과 이별하면서 시즌1이 끝나는데, 시즌2에서는 다시 죽은 이들을 볼 수 있게 된 두 사람이 오일용(배우 김동휘)의 안내로 실종자들의 영혼이 모여서 살아가는 '3공단'이라는 또 다른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된다.

폐공단의 모습을 한 외관과 달리 3공단의 실제 모습은 고즈넉하고 단아한 한옥촌에 웅장한 보호수와 잔잔한 호수가 있는 시골 마을이다. 시즌1의 토마스 역할을 하는 것은 보호수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강선장(배우 이정은)이다. 3공단에는 보호수를 통해서 죽은 이들의 영혼이 마을에 도착하는데 그럴 때마다 강선장은 당황해하는 망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이며 살뜰히 보살펴 준다.

강선장과 함께 3공단을 이끌어 가는 인물은 3공단의 초등학교 교장 정영진(배우 정은표)이다. 그는 3공단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판석이 3공단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판석의 딸이 실종 상태에서 이곳에서 머문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즌2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3공단의 중심에 둠으로써 실종된 아이들에게 이야기의 초점을 맞춘다. 또 아이들에게 보다 집중함으로써 시즌1보다 훨씬 보살핌의 의미가 두드러지는데, 강선장을 여성으로 설정한 것도 그런 의미를 더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선장은 끼니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간식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강선장뿐만 아니라 3공단에서 딸과 함께 지냈던 아이들에게 딸의 물건을 전해 받은 판석 역시 마치 부모처럼 아이들을 보살핀다. 한편 죽은 자들은 3공단 밖으로 나갈 수 없음에도 어떤 이유로 자유로이 바깥세상을 드나들 수 있는 오일용과 김욱은 실종된 아이들의 사연을 좇으며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한을 풀어 주느라 고군분투한다.

드라마 '미씽 : 그들이 있었다'의 배경이 되는 두온마을이나 3공단은 육신을 잃어버린 죽은 이들의 영혼이 살고 있는 곳이니 정토는 아니다. 그러나 정토를 연상시키듯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는 무한한 애정으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토마스나 강선장 같은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의 처지 또한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실종자들이지만, 이들은 마을의 모든 이들을 떠나보낼 때까지 마을에 남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이들을 자신들의 성불을 미루고 중생구제에 힘쓰고 계신 보살의 화신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드는 김욱과 장판석과 오일용이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한을 풀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불교에는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지옥 중생까지도 구제하리라 서원한 지장보살이 존재한다. 또 불국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있는 곳이 정토라 했다. 그러니 비록 선업 공덕과 발원으로 아직 정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보살과 다름없는 마음으로 두온마을과 3공단을 지키는 토마스와 강선장, 또 그들의 좌우보처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김욱과 장판석과 오일용이 있는 세상이 정토가 아닐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고통을 인내하는 세상이라고 한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어제까지 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으니 갖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주변에는 나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며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한, 지금 이 자리도 정토가 아닐까? 눈치채지 못할 뿐 어쩌면 우리는 이미 불보살님의 보살핌을 늘 받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게 나를 지탱해 주는 내 옆의 누군가가 바로 관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니 나도 누군가의 보살이 되어 그에게 정토 세계를 펼쳐 주자.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대행 스님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자성을 깨치기 위해서는

질문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자기 근본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놓고 가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습에 이끌려 가게 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자성을 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그래서 부처님께도 모든 것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환상에 속지 말라. 모든 거 일어나는 대로 나온 자리에다 되놔라. 이렇게 '방하착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 되나. 우리는 모든 게, 안에서 나오는 거든지 또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든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도 있고 생활도 있고 부처도 있고,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냐?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생활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모두 놓지 않는다면 모든 그 업보를 녹일 수도 없거니와 하나하나 자기 그 모든 수십억 마리의 악업 선업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하게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내 주인공만이 나를 악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잘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병신 안 되고 이렇게 성한 몸으로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라는 아집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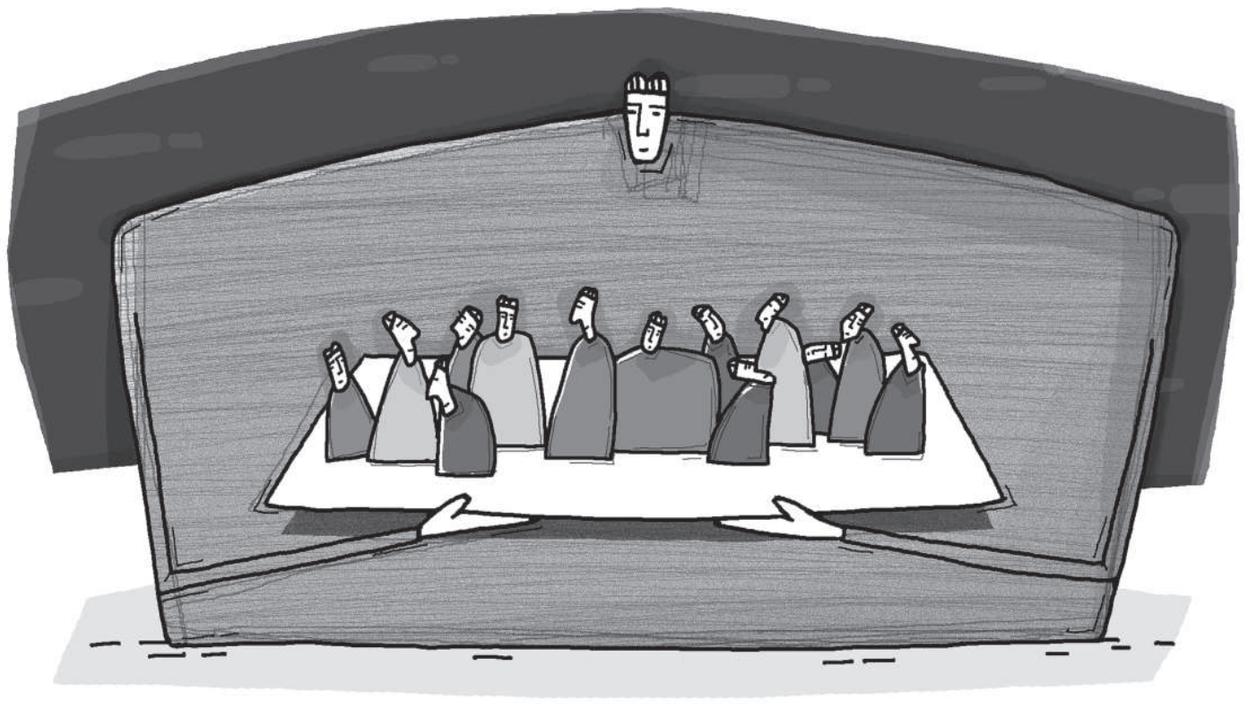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하나하나 놓는다면, 그 수십억 마리 중에, 즉 말하자면 육신 속에서는 간장 공장이니 위 공장이니 이자 공장, 방광 공장, 소장 공장, 대장 공장, 이 공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내 마음, 그 지배인 사장은 항상 두뇌로부터 사대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놓는다면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진화돼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놓지 않는다면 자기가 악업 선업 지은 대로 독 안에 들어도 면칠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하나 용광로에 쇠를 넣으면 새 쇠로서 생산이 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중생들도 보살들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하고 목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것을 다 녹인다면, 그렇게 녹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철저하다면 우리가 아주 물이 없는 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물을 촉촉이 주는 거와 같다. 돌을 골라내는 거와 같고, 체로 치는 거와 같고, 또는 풀 뽑아 버리고 고렇게 해서 물을 잘 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갈라지지도 않고 손색이 없이 싹이 나와서 바로 발현이 돼 가지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물을 먹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을 깨치는 겁니다.

그것을 카세트로 비유한다면 카세트에 먼저 넣은 것은 또 나중에 넣은 것에 의해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없어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악업 선업의 그 카세트를 짊어지고 나온 것을 바로 그렇게 놓고 간다면 그렇게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니, 바로 여러분의 그릇이 항상 비니 어느 거라도 담을 수 있는 거고, 담으면 없어지고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놓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 번 죽음의 의미

질문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보면 세 번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요.

답변 첫째는 모든 것을 한데 뭉쳐서 맡기고 놓는 반면에 자기 영혼을, 자기 영혼의 '부'를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기는 '자'고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모든 능력은 바로 자기의 '부'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은 '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두가 수억겁 광년을 내려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즉 말하자면 뜬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함과 같이 사람도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또는 형제가 됐다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그러면서, 짐승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이 수억겁을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도 잠깐 우리가 사는 거다 이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된다. 또 놓고 거기에 맡기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쉬는 게 없이 찰나에, 찰나에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 도리를 완전히 배워서는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천백억화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모든 것을 둘이 아니게 무조건 응해 주고 건져 주고 사랑해 주고,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아닌 도리, 즉 말하자면 내가 사람을 하나 건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안되는 일을 했다면 그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 나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찰나에 들어갔다 한 찰나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 찰나에, 둘이 아닌 까닭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한 찰나에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네가 됐다가 내가 되고, 내가 됐다가 네가 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돌아가는 이 블랙홀 이 자체가,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 번 그렇게 뭉쳐 놔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만약에 완전히 안다면 살아서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세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환상에 속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나온 자리에 되놔라

☞ 19면에서 계속

계를 보듯이, 안방에 앉아서 세계의 모든 정세를 듣듯이, 그냥 안방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이 손아귀에 무의 법, 유의 법을 갈이 쥐고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이 소립니다.

닥쳐오는 병고액난이 두렵습니다

질문 삶은 고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지불식간에 닥쳐오는 병고액난이 두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병고에 대한 두려움이 은근히 마음을 짓누릅니다. 모든 것에 걸림 없이 중심 잡고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 놔라. 그런다면 거기에서 다양하게 굴려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약을 따진다 하더라도 천 가지 만 가지가 되니 그 천 가지 만 가지 구차하게 이름 부르고, 그걸 천 가지 만 가지 찾아서 내가 그 아픈 데에 따라서 꼭 약을 써야 할 텐데 어떤 약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그게 한두 건이라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은, 내 입장으로 따진다면 참 귀찮은 일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걸 느꼈죠. '야, 참 모든 게 살아나가는 게 귀찮구나.' 사람 사는 것도 천차만별로 움죽거려야 하고 천차만별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천차만별의 이름을 알아야 그 종류를 찾을 테고, 그 종류는 또 천차만별로 돼 있고 이러니 종류마다, 사람 종류도 차원도 또는 어떠한 약의 종류도 이름도, 우리 살아나가는 데 천차만별로, 그 돌 하나 흙 하나도 전부 움죽거리지 않음이 없음으로써 바로 그것도 우리의 약의 종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물도 약이 되고, 물만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풀잎을 수없이 베어다가 큰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아 보십시오. 나중엔 끓다 끓다 끓다 조청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모두 어지럽게 생각을 하고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사니까 어지러운 거지, 그래서 수만 개, 수만 짐을 사다가 베어다가 갖다가 고니까 똑 조청같이 되는데 그것을 조그만큼씩 하게 하려니까 거기에다가 참, 풀뿌리나 이런 걸 말린 거를 갖다가 또 가루를 만들어서 섞는다 해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오징어 뼈를 갖다가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 섞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약입니다.

왜 그런가. 지수화풍이 전체 약의 근원도 되고, 살아나가는 데 근원도 되고, 법의 근원도 되고 모두 일체 만법의 그 전율, 이 무전 통신 이런 것이 전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전부 모태가 돼서.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약에만 종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주간 법칙에도 종류가 돼 있고 또 우리 살아나가는 데 가난 또는 부자 이런 것도 거기에 소관돼 있고 모두가 근본입니다. 근본 모태가 돼서, 우리가 허망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이 물질 하나하나가 영원한 거지 영원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허망하다는 생각을 말고 요렇게 요렇게 변해서, 요렇게 바꿔서 옮겨 갈 뿐이지 절대로 영원한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 풀이 만 개라면, 그 풀의 종류가 전부 선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각각, 즉 말하자면 만 개가 전부 이 인체에 똑같은 아픔이라든가 똑같은 일에 쓰이는 풀이 아닙니다. 다 각각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뭣에 먹고 요건 뭣에 먹고 요건 뭣에 먹고 하는 그것이 천차만별로 그건 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따져요?

나는 그전에 '야! 물질로 본다면 이름도 천차만별이고 생김생김도 천차만별이고 하고 돌아가는 것도 천차만별이니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 말이야, 너 물질이 있다면 나도 물질이 있고, 네 마음이 있다면 나도 마음이 있고, 네 마음 가운데에 선약이 있다면 나도 내 마음 가운데에 선약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족할 땐 네가 받쳐 주고, 네가 부족할 땐 내가 주마.' 이렇게 해서 이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주인공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다면 물질로서 일일이 이름을 따지고 일일이 종류를 찾지 않아도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서,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 또 가난하다, 무슨 법에 걸렸다 이런 종류에 따라서 전체를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거기에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모든 분야와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약은 거기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놈의 거를 종류를 따지자니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귀찮습니까.

내가 오며 가며 봐도 그렇고, 참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귀찮았던가. 내가 참 잘 생각했죠.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숭상하지 않는다면 대 우주의 근본의 원리 또는 활용 이 자체를, 또는 내가 한 발 한 발 옮겨 간다는 그 진화력 이런 거를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터득을 한다면 모두 우리가 편리하게 앉아서, 천리만리 있는 것도, 즉 말하자면 불로초를 구할 수도 있는 법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지만 참인간은 불로초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종류 종류, 일일이 요거는 약풀이고 요거는 약풀이 아니고 이렇게 따진다면 수효가 천차만별로 돼 있고 도대체 어떠한 이름과 어떠한 종류를 찾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고 귀찮게 되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도대체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원 근본에다가 모두 놓으니까 근본끼리 전부 주고받습니다, 근본끼리. 그 뜻을 아신다면 아니, 저승에 가서 불로초는 구하지 못하리까.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도 있는 거는 저승에 가서 그 모든 문서를 파악할 수 있고 자유자재권을 가져서 그거를 들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춰 볼 게 있어서 들춰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근본에 넣으면 전부 보이게끔 돼 있고, 수명은 어떻게 돼 있고 또는 죄상이 얼마나 돼 있고 인과가 얼마나 돼 있고 유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전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놓으면 모든 것은 바로 그 근본 한 점에서, 한 점과 한 점이 모두가 수천수만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한 점은 한 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도, 선약도 그대로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야만 약인 줄 아는데 진짜 약은 바로 그 액 자체, 무전자에서 나오는 그 액 자체가 그 선약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수 없는, 저런 은하계나 저런 다른 혹성, 별성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한 점의 마음에서나 구하지 절대로 딴 데서는 구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편리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일이 뭐, 꽃가루만 와도 알레르기, 뭐만 와도 알레르기, 뭐, 고등어만 먹어도 알레르기, 뭐, 전체가 모두 그냥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고, 이거 일일이 쫓아가면서 끄달리면서 사니 이 한 몸뚱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꼭 하고 볼 일입니다. 그 수많은 약이 다양하게 내 한 점의 마음에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함도 부자도 바로 한 점에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살고, 인과라든가 유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 점에 있다는 겁니다. 일체 생명이 다 그것이 한데 합쳐서 내 한 점에 다 포괄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이 아닌 게 없고 내가 급하면 이 여기에다가만 바로 맡겨 놓고 만약에 한생각을 일으킨다면…, 아, 생각 안 일으킬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가다가 다리가 어그러졌다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아요? '어이, 다리가 어그러졌네.' 그런 생각이 뭐, 아주 그냥 금방 신호가 오죠? 신호가 올 때 그냥 '흥, 나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이 다리가 어그러졌으면 날 어떻게 끌고 다니노?' 하고 그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 당당하고 도도한 여유, 그것이 바로 그저 시시때때로 나에게 보조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부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의 중생들은 어떻게, 이 몸속의 중생들은 어떻게 끌고 가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인과로 인해서 또는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다 억겁을 통해서 지내 왔기 때문에 진화돼 가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지금 이 속에 잔뜩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몸뚱이 속의 중생이 자기의 한생각에 진화가 되느냐, 이 갑갑한 몸속에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도 자기한테 달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게, 우리는 물질 아닌 선약이 수천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게 있으며, 이 법이 자연의 법칙과 자동적인 활용과 자동적인 바로 무전 통신과 자동 전자, 이 도리가 전체 이 여기에 모두가 포괄돼서 구성되고 있으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하나하나 듣고, 남한테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내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는다면 끄달릴 거 하나도 없어요. 죽는다 하더라도 끄달릴 것 없고 산다 하더라도 끄달릴 게 없고, 거기에 뭐가 끄달릴 게 있습니까. 종류에 끄달려, 이름이 끄달려? 만약에 생각으로 한생각이면 배가 부르고, 한생각이면 그 어디 아픈 게 낫고, 한생각이면 저기 가고, 한생각이면 여기 오고 이럴 정도라면 우리는 살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모르면 영원히 또 이렇게 끄달릴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끄달리는 것도 한 점의 마음에 달렸다. 그 한 점의 마음에 천 가지 만 가지 나오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보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듣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활용하는 거 모두 일절 자기의 성품에, 한 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자기가 그렇게 맡겨 놓는 반면에 거기에서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약이 돼서, 자기에 부당한 게 오는 게 아니라 다 바로 거기에 맞는 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한 이름에 끄달리고 남의 말에 끄달리고 바로 어떠한 종류에 끄달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인간 살맛이 어디 나겠습니까.

>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하나하나 듣고
> 남한테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 내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는다면
> 끄달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일일시호일

7살 딸 보며 버틴 한국살이
유방암 재발로 멈춰

다시 치료대 오른 중국 출신 왕미군 씨
미납 수술비 · 치료…감당하기 벅찬 현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① 헌신 뒤 억눌린 눈물과 '자기 돌봄'의 길

"잘해 줬는데도, 왜 관계가 끊길까요?"

"늘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함이란 마음의 병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김상담 어르신(가명, 65세, 여)의 첫인상은 정서적 긴장 상태와 경계 태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어르신은 상담자의 질문에 습관적으로 "아니요"라고 답하며 대화를 주도하려 했고, 상담자의 발언에 습관적으로 부인(Denial)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한마디로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관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자가 주택을 보유할 만큼 경제적 자립을 이뤘지만, 실제로 어르신은 대인 관계의 반복된 단절로 인한 심각한 우울감과 소외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늘 양보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멀리하고 결국 관계가 끊어질까요?"

김상담 어르신의 억울함은 마음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면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가 돋는 등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의 심리적 갈등이 신체화(Somatization)돼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트라우마 생존자, 헌신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

어르신의 심리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가족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르신은 정신 질환을 앓던 어머니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트라우마 생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마음속 근원적인 두려움은 어르신에게 주위에 대한 '완벽한 통제'와 '경제적 성취'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역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압적인 남편의 폭언과 시댁의 차별은 어르신을 더욱 고립시켰고, 더욱이 자녀의 자살은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르신은 자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타인을 향한 더 큰 희생과 헌신'이라는 방식으로 보상하려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 주면, 내가 더 희생하면 이 고통이 보상받지 않을까?'라는 무의식적 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없는 배려,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다

김상담 어르신의 고민인 '관계의 단절'은 역설적으로 어르신의 '지나친 친절'에서 비롯됩니다. 어르신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 혹은 자신이 과거에 받고 싶었던 배려를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임신 초기에 의사를 묻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인들에게 자신의 기준에서 좋은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배려'가 아닌 '정서적 압박감'과 '통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 위한 헌신 자리한 인정 욕구
상대 바꾸려다 소통 벽 만들기도
나의 불완전함 수용 시 회복 시작

진실한 대화는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은 주위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강력한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큰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감정의 해방과 '나비 포옹'

상담 과정에서 어르신은 상담사를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며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강력한 대상(아버지, 남편, 종교)에게 의존해 왔던 삶의 방식이 투사된 것입니다.

상담사는 '나비 포옹법'과 같은 안정화 기법을 통해 어르신이 스스로를 다독이게 했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과거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하고, 타인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는 주체적인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던 어르신이 혼자서 음악회를 가고 화초를 가꾸며 자신만의 기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잇는 마음의 다리

자존감의 회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나의 고통을 인정해 주고, 나의 불완전함을 수용할 때 비로소 회복의 싹이 틉니다.

어르신은 이제 주위에 "준 만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보상적 대화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지무문 노고특우 단장기비 무유지혜(人之無聞 老苦特牛 但長肌肥 無有智慧) 사람이 배움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며 자신의 성찰과 변화를 깨우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움'이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성찰을 뜻합니다.

김상담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 인정의 한마디를 나 자신에게 먼저 건넬 수 있을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관계의 벽은 비로소 문이 되어 주위와 진실하게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건강 365

54 겨울철 넘어짐과 골절

빙판길 낙상, 어르신에 '큰 사고' 될 수 있어

겨울이 되면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중 "빙판길에서 한 번 미끄러졌어요", "눈길에서 넘어졌는데 며칠째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그냥 멍이 들었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계속되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병원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검사해 보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뼈가 부러진 '골절'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근육이 굳어 있고 눈이나 얼음으로 길이 미끄러워 균형을 잃기 쉬워,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겨울 낙상이 더 위험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뼈의 강도는 약해지고 근육의 힘과 균형 감각도 점점 떨어집니다. 여기에 추운 날씨가 더해지면 몸은 더 굳고 반응도 느려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냥 멍으로 끝날 일이, 어르신에게는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두꺼운 외투와 장갑, 부츠 등으로 움직임이 둔해지고, 시야도 좁아져 미끄러운 길을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겨울철 낙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골절

① 손목 골절

미끄러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손으로 바닥을 짚는 것입니다. 이때 손목에 체중이 실리면서 손목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붓고 아픈 정도라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손목이 틀어지거나 힘이 약해져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② 고관절(엉덩이 관절) 골절

옆으로 넘어지며 엉덩이를 부딪히면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골절은 특히 위험한데,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고 장기간 침상 안정이 필요해 폐렴, 욕창, 근력 감소 같은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골절입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어르신 뼈 강도 약해지고 근육 힘 떨어져
단순 타박상 아니라 골절 적지 않아
통증 지속, 붓기 심해지면 진료 받아야

③ 척추 압박골절

엉덩방아를 찧듯 주저앉으면 허리뼈가 찌그러지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조금 아픈 정도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등이 굽거나 통증이 지속돼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 넘어지고 난 뒤 통증이 2~3일 이상 계속될 때
- 붓기나 멍이 점점 심해질 때
- 특정 부위를 움직일 때 유독 심하게 아플 때
- 체중을 싣기 어렵거나 절뚝거리게 될 때
- 숨을 쉬거나 기침할 때 허리나 옆구리가 아플 때

이런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고 넘기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해 엑스레이(X-ray) 등의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겨울철 낙상 예방법

1. 미끄럼 방지 신발 신기. 밑창이 고무로 된 신발이 좋습니다.
2.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기.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펭귄처럼'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걷기.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밤길과 그늘진 길은 피하기. 얼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5. 집 안에서도 조심하기. 욕실 바닥, 현관, 베란다 등도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겨울철 넘어짐은 순간이지만, 골절은 이후 수개월, 길게는 평생 불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에게는 작은 사고 하나가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난 뒤 통증이 남아 있다면 "괜찮겠지"라고 참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의 주의와 빠른 진단이 큰 후유증을 막아 줍니다.

이번 겨울, 넘어짐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병원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사직야구장 앞
어깨·관절·척추·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 230622-중-155173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수술

우리 복지관은 지금

2.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중

연기와 동체대비로 이어지는 불교사회복지 실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회 곳곳에서 이웃과 함께해 왔습니다. 사찰의 마당에서, 복지관의 상담실에서, 재난 현장의 임시 거처에서 재단의 자비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언제나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비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전국 각지의 사찰과 사회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지역 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복지 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의 고유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기반 복지 현장에서는 무료 급식, 독거노인 돌봄, 취약계층 상담과 지원 등 일상적인 복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 가는 복지를 지향해 왔으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는 동체대비의 정신에서 비롯된 실천입니다.

이러한 불교사회복지의 철학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장기간 치료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난치병 어린이와 그 가족을 지원하며, 아이 한 사람의 고통을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고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단의 난치병 어린이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 보조를 넘어, 아이가 다시 일상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불교적 돌봄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운영·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복지시설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와 관리 차원을 넘어 이용자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는 신체적 돌봄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보살행'의 현대적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재단의 자비 실천은 계속 이어집니다. 국내외에서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긴급 구호 체계를 가동해 생필품 지원과 의료 지원, 심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존재라는 불교의 가르침 위에서 불교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원예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임

대만불교 포교일기 ① 출세(出世)의 정신, 입세(入世)의 사업

치열한 정진, 자비행으로 꽃피우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산속을 벗어나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온 불교는 어떤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가? 대만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 큰스님(星雲大師)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한다.

대만 불광산사는 성운 큰스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출세(出世)의 정신으로 입세(入世)의 사업을 하라"는 말씀이다. '출세'란 세속의 번뇌를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본분을, '입세'는 고통받는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실천을 말한다. 큰스님께서는 수행자의 마음은 추호의 흐트러짐 없는 청정함을 유지하되, 그 자비의 손길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 속에서 꽃피우고자 하는 '인간불교(人間佛教)'의 핵심이다.

필자의 가슴을 뜨겁게 적신 것은 이 거대한 불사들을 가능케 한 스님들의 '원력(願力)'이었다. 성운 큰스님께서는 평생 "나는 빈손으로 시작했으나, 오직 중생을 돕겠다는 원력 하나로 전 세계에 법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원력은 아이들의 동심을 가꾸는 유치원부터 지혜의 전당인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으로 꽃피었다. 미국의 서래대학(西來大學)을 시작으로 대만의 남화대학(南華大學)과 불광대학(佛光大學), 호주의 남천대학(南天大學), 그리고 필리핀의 광명대학(光明大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건립된 5개의 대학은 불교 교육 역사에서 유례없는 원력의 결실이다.

K-문화 인기 속 한국불교 중요 전환점
사찰이 평안·배움 얻는 '인생 학교'로서
청정 수행·중생 행복 위한 이타행 해야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늘날, 한국불교 역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전법은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아픔을 공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 사찰이 기도의 공간을 넘어 누구나 찾아와 평안을 얻고 배움을 얻는 '인생의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수행자는 세속의 명예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출세의 정신'을 굳건히 하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중생의 행복을 위한 '입세의 사업'이 돼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먼저 스스로를 닦고 세상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

육조 혜능 대사께서도 말씀하셨다. "불법은 세간에 있다. 깨달음은 세간을 떠나 있지 않으니 세간을 떠나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求菩提, 猶如覓兎角)." 우리는 출세간의 청정한 마음으로 온 세상의 행복을 일구는 전법의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언젠가 한국 스님들이 불광산사를 방문했을 때, 분주히 움직이는 대중들을 보며 "불광산사 스님들은 이렇게 바쁜데 언제 수행을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성운 큰스님은 "그건 수행이 아니라 휴식이다"라고 답했다. 이 말씀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입세의 사업과 자기 내면을 닦는 출세 수행이 결코 둘이 아님을 뜻한다. 이타행(利他行)이야말로 수행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수행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환희야말로 최상의 휴식이라는 통찰이다. 성운 큰스님이 평생 보여 주신 이 원력의 정신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이 담겨 있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② 조고각하(照顧脚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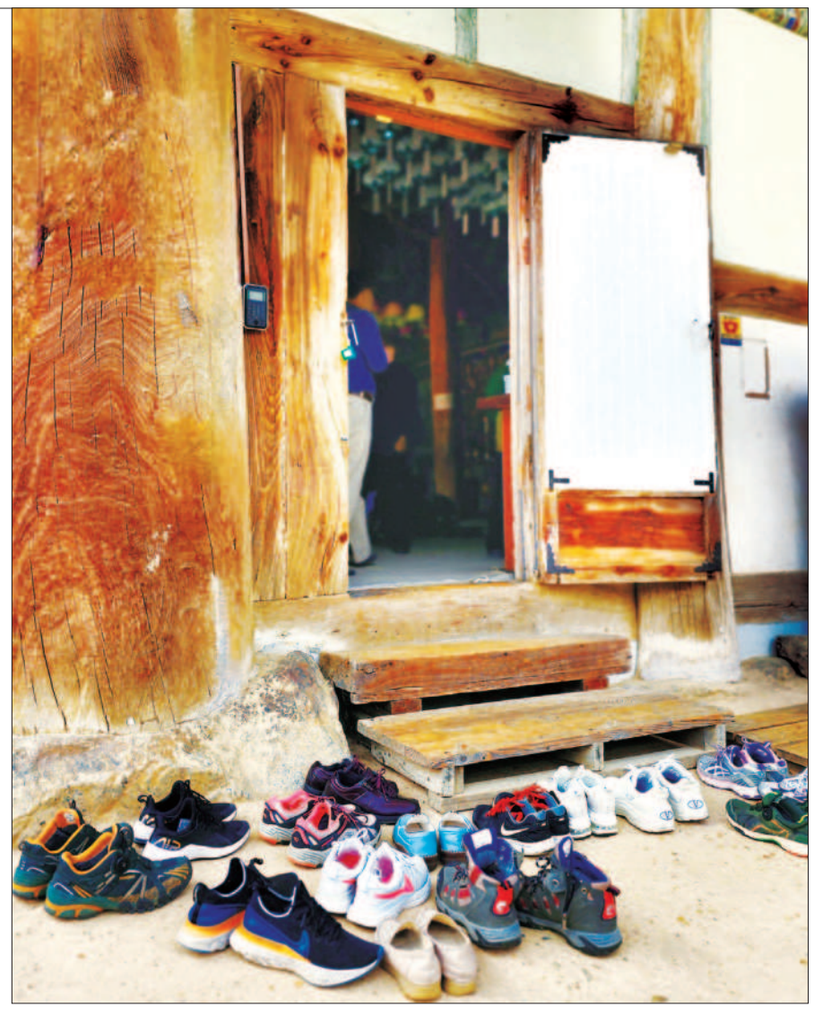
법당으로 들어간 발이 벗어 놓은 '그림자'가 가지런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달랑 두 식구 사는 집에서도 신발 곱게 벗어 두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절에서는 그게 된다.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는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왔을 것이다. 누군가는 가족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는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세상의 신발들이 법당의 늙은 문턱 아래에 총총히 모였다. 작은 발, 큰 발, 바쁜 발, 지친 발이 한데 모여 쉰다. 달뜨고 숨 가쁘며 기쁘고 슬픈 길 위의 시간들이 잠시나마 안식한다. 그렇게 비워진 켤레마다 저마다 원하는 시간이 고여 들면 좋겠다.

'조고각하(照顧脚下)'. '발밑을 살피라'는 이 쉬운 말씀을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라는 말이 변명만은 아니다. 조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절에 오면, 절로 그렇게 된다. 절집이라는 공간의 힘이다.

절에 가 보면, 알게 모르게 얼마쯤이라도 자신이 살펴진다. 절집이 문을 열어 두는 이유다. 절에 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찰이자 기도다.

손영자 작가



마곡사 대웅전.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우보험대리점도 흥국생명 제제2025022호 및 소속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자 알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체결(대리)권 및 보험중개사의 중개업무 등을 할 수 없으며 특별이익 제공 등 불법모집 관련 금지의무를 준수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안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사전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장개시일은 예상보험료 산출을 위해 해약환급금은 만기시 보험금에 기초하여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만기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하여) 납입보험료 이하일 경우로 본 보험회사 보험상품이 고객님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보장개시일을 정하였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거나 적게 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보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국번없이 1332 ※보험상품비교공시: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승인번호: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2025-09-23~2026-09-22)

어디가 깨달음의 도량인가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넓을 홍(弘), 큰 대(大). 넓고 크게 마음을 일으켜 걸림없이 대자대비 하라(廣大圓滿 無碍大悲心). 한없이 넓고 큰, 두려움 없는 대자대비심.

도시 한복판.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젊고 빠르고 소란스러운 곳, 홍대에 자리 잡은 홍대선원.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 절을 세웠습니까?"

출가 후 10여 년이 지난 무렵, 소백산 양백골 암자에서 1000일 동안 두문불출하며 살았다. 고독 속으로,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다. 1000일 기도 회향 100일을 앞두고 운명처럼 하나의 상황이 펼쳐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홍대 인근의 큰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닫은 것이다. 건물 주인인 신도 보살님의 간청과 함께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3가길 8-3. 이제 곧 회향인데 이 무슨 인연인가. 세상으로 들어가 시주 은혜에 밥값을 하라는 뜻인가.

7일 동안 한 생각에만 머물기로 했다. 매일 예불하고 농사짓고 도반들과 함께 먹고 공부하며 살았다.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했다. 소박했고 한가로웠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했다. 하지 말자. 한 생각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생각이 올라왔다. 이 화두의 열쇠는 'NO'였다. 'NO'를 뛰어넘어

출가 15년 청년 마음 모인 도심으로
세계가 함께 불교 만나는 홍대선원
마음 중생심 돌이킬 때 대승 공양

야 풀리는 화두. 'YES'도 옳고 'NO'도 옳다면? 에라 모르겠다, 'Yes'다. 산중생활 15년 만에 나는 도심으로 들어갔다.

홍대입구역과 신촌역에서 천천히 걸어 7분. 태어난 동네로의 회귀이자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이 가장 밀집한 현장. 번화가에서 살짝 벗어난 주택가의 6층 건물. 도반 백담 스님과 도명 스님, 그리고 몇몇 청년들과 망치를 들고 벽부터 철거했다. 불자, 무종교인, 외국인들이 모여들었고 1년 동안 공사장에서 함께 먹고 자며 공간을 만들어 갔다. 수익은 없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지금 여기, 오직 할 뿐.

우리가 만든 것은 '절'이면서 동시에 '게스트하우스'였다. 참선, 명상, 요가, 채식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공간.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막혀 있던 숨구멍이 열리듯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한류를 따라온 세계의 청년들에게 우리는 가장 오래된 정신의 뿌리, 불교라는 거울을 조용히 내밀었다. 지난 3년간 50여 개국에서 4만여 명이 다녀갔다. 4개국, 8명이 출가 발심의 인연을 맺었다.

홍대선원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살고 함께 일한다.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다.' 소백산 은거인 석불당 봉철 선사께서 내려 주신 이 가르침을 홍대선원의 뿌리로 삼았다. 그러나 모든 공양의 시작은 자기 마음부터다. 자성중생을 서원하고 자기 마음의 중생심을 돌이킬 때 비로소 대승의 공양이 이뤄진다.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초를 켜고 좌복을 정리한다. 각지에서 온 공양물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고 칠판에 적어 하루에 한 번은 보며 다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홍대에 절을 세웠습니까?" 나는 다시 묻는다. "어디가 깨달음의 도량인가."

휴게소에서 쉬어 가는 한 해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우리 한국 사람은 새해를 두 번 맞는다. 양력 1월 1일을 공식적인 설로 지정하고 관공서 등 사회 곳곳에서 이날을 새해 첫날이라 여기면서부터 양력과 음력 두 차례의 설을 쇠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며 음력설을 없애려 했지만 쉽지 않다. 우리 민족에게 떡국 먹는 날은 음력 1월 1일이기 때문이다.

설이 두 번 있다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새해에 근사한 계획을 세웠지만 2026년 1월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흐지부지돼 버렸다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겐 음력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목표는 단순하게 잡았다. '휴게소에서 쉬어 가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라는 안내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 졸음쉼터도 곳곳에 마련돼 있다. 그런 문구와 시설을 볼 때마다 고속도로라는 것이 속도를 높여 내달리는 도로의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제대로 잘 쉬는 법을 익히게 하기 때문이다. 잘 쉬어야 잘 달릴 수 있다. 잘 달린다는 것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뜻보다는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달려서 도착한다는 말이다. 잘 쉴 수 있는 공간이 휴게소다.

〈묘법연화경〉 '화성유품(化城喩品)'을 읽을 때면 고속도로 위 휴게소가 떠오른다. 그 오랜 옛날 상인들은 저마다 낙타 등에 귀한 상품을 한 보따

사막 건너는 상인 안내 길잡이
잘 쉬게 해 무사 여정 이끌어
인생길 잘 걷도록 잘 쉬는 해 되길

리 싣고 사막을 가로질렀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자신들을 이끌어 줄 길잡이였다. 길잡이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길이 얼마나 길고도 험한지, 얼마나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길만 알아서도 안 된다. 자신을 따르는 상인들의 피로도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곳에서 쉬게 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막막한 사막에 쉼터가 어디 있으랴. 경전에서는 '유능한 길잡이가 짐짓 요술로 근사한 성을 하나 만들어 내었다[化城]'고 말한다. 사람들은 그 진위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잘 도착했다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길잡이는 사람들이 잘 쉬고 나서 다시 힘을 내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격려해서 먼 길을 걸어 무사히 도착하게 한다. 경전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이와 같음을 밝히며 성불에 이르는 길에서 부처님의 역할을 비유로써 설명하고 있다.

이 비유에서 내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은 상인들을 푹 쉬게 한다는 표현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게 하면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너무 힘들게 쟁취하면 열매는 달콤하기는커녕 허망함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잡이는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을 잘 쉬게 했다. 잘 쉬면 굳이 길잡이가 채근하지 않아도 상인들은 저마다 길 떠날 채비를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불교는 서울로 '잘' 가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고속도로 같은 내 인생길에서 질주본능을 잠시 내려놓고 올 한 해는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려 한다. 휴게소를 찾지 못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당신은 이미 휴게소에 도착해 있음을 알아차리시길 바란다.

社 說

'마음 안보'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올해 조계종의 핵심 종책은 '국민 마음 평안'과 '마음 안보'로 요약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마음 문명 불교' 구상과 선명상을 통한 '마음 안보' 종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리적 위기와 공동체 붕괴 현실에 대한 불교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우울과 불안, 분노와 고립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 '마음 안보'란 표현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계종이 불교 수행의 핵심인 명상과 마음공부를 통해 국민 정신 건강 기여를 천명한 것은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국민 정신 건강 기여' 천명
제도적 기반으로 삶의 변화 이뤄야

특히 선명상을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평안 훈련'으로 규정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는 불교 수행을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권위나 배타성을 앞세우기보다 수행의 효용을 사회와 공유하겠다는 태도는 한국불교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대사회적 역할의 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

'국민 평안 선명상 중앙본부' 설치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과 현장 보급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가 마련된다면 선명상은 일회성 유행을 넘어 장기적인 공공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명상이 교육·보건·복지 영역과 연계돼 어린이와 청소년, 직장인과 노년층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회적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선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선명상의 공공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종교적 언어와 형식은 최소화하고,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종단 내부의 인식 전환과 역량 결집 또한 중요하다. 선명상과 마음공부를 종단의 핵심 수행·포교 영역으로 인식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선 사찰이 지역사회의 '마음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중앙 차원의 정책은 현장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진우 스님이 강조한 화쟁 사상에 기반한 사회적 역할 강화 역시 '마음 안보'와 깊이 맞닿아 있다. 선명상과 마음치유 활동이 사회적 약자 지원, 자살 예방, 재난 치유와 결합될 때 비로소 불교의 자비는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실천이 된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다짐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 안보' 종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법과 제도, 인재 양성과 재정 구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 종책은 종단의 중장기 과제로 안착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마음의 방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럴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길을 제시하는 일이다. 조계종이 선언한 '국민 마음 평안'과 '마음 안보'가 구호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월 2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월 2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월 2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70년(2026) 1월 2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지구사랑 캠페인

"물과 불, 바람이 원만 순환하여 공용으로 물이 불어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 속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흙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쓰는 대로 바람이 일고,
불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 대행 선사 법어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생활 속에서 꽃 피우는 자비 실천 - EM사용하기

www.smallactions.co.kr 한마음선원EM지구사랑작은실천 @earthloveaction